

반딧불은 숲을 아름답게 하고  
**KOPEC의 기술은 한국의 밤을 아름답게 합니다**



별이 내리는 동화 같은 한강의 야경. 분위기 있는 당신의 테이트 뒤편에도 KOPEC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당신 옆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 KOPEC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KOPEC의 기술은 우리 생활 속 에너지 관련 설비 전반에 걸쳐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설계·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KOPEC,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당신 옆에 KOPEC이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영광원자력발전소      단진화력발전소      탈황·탈질 설비

**KOPEC**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www.kopec.co.kr](http://www.kopec.co.kr)

통권 304호 2007

**KOPEC** family

한 국 전 력 기 술

**05**



# May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이 노래를 부르던 때처럼 우리 모두 푸르기를,

밝고 건강하여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소망하고 또 노력하고,

## Contents

2007 KOPEC FAMILY

- 4 K-Message | KOPEC 2030
- 6 KOPEC NEWS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외
- 10 테마기획 - 세계속으로 | 영화의 고향 브뤼헤
- 14 생활과 과학 | 과학으로 본 '마린보이' 박태환의 수영
- 16 웰빙 KOPEC | 올 한해 즐길 취미는 고르셨나요?
- 18 도전 IT전문가 |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디지털 놀이터
- 20 Teamwork | 신월성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관리팀
- 24 KOPEC 문예 | 제17회 한기문에 우수작
- 30 우리가족 만세 | 토목기술처 최만기 차장 가족
- 32 지상전시회 | 포토저널리즘의 신화 - 로버트 카파
- 34 경제를 보는 눈 | FTA가 초래할 경쟁의 실체는
- 36 건강 100세 | 우울증, 알고 대처하자
- 38 문화의 산책 | 현대인을 사로잡는 퓨전
- 40 Radar | 정부공사 기술제안형으로 대폭 수정 외
- 42 InsideOutside | 서클동정 외
- 46 퀴즈한마당 | 틀린그림 찾기 외
- 47 밑줄긋기 | 사랑이 부르면



Cover Story | 촬영: 홍보실 김종학 사진기자

정보화추진처 오세란 차장은 타의 귀감이 되는 업무수행으로 2007년 상반기 회사 모범직원으로 선정되었다.



# KOPEC 2030



오늘은 5월 기술처 회의가 있는 날이다. 10여명의 직원이 여기 저기 편한 자세로 둘러 앉아 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벽에 설치된 대형 100인치 스크린 2대에 국내의 사무소, 현장 및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의 정겨운 모습들이 보인다. 영상회의는 협력업체의 설계 관련된 긴급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안부와 함께 30분만에 끝난다. 대부분의 설계 및 관리업무는 아웃소싱 되어 본사에는 극소수의 경험인력이 사업의 진행 상황 및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전산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핸드폰 없이도 생각을 교환하는 텔레파시 통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가 길어질 이유가 없다. 직원들은 손바닥만한 소형 컴퓨터 같은 것을 책상에 놓고 있고, 이것으로 이동 중에도 영상전화 및 무선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로봇이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며 직원들의 시중을 들고, 때때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여기 저기서 들린다.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김천으로 회사가 이전한지도 20년 가까이 되어 경북지역 출신들이 대거 입사하여, 서울출신인 김팀장의 말투가 어설피게 들린다. 서울 촌놈이 따로 없다.

급변하는 세계의 기술환경 속에서 아마도 이보다 훨씬 앞선 새로운 차원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1979년 입사 당시 타 이피스트를 고용하여 카드에 일일이 천공한 후 KIST에 있던 대형 IBM 컴퓨터를 돌려서 스프레드시트 출력물을 일일이 확인하던 때를 떠올리며 향후 25여 년 후 사무실의 모습을 잠시 그려보았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3년 7100만 kW 정도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수요가 포화되며, 이후 2020년까지 수요증가율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당진 9,10호기 및 신울진 1,2호기 건설이 완료되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의 대형발전소 신규건설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면 서두에서 연출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회사의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직원들이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까? 연료전지? 전력 IT? PM/CM 사업? 환경 친화 사업? 핵융합? 확인되지 않은 블루오션?

2004년 12월 Louis Berger Group, Inc. (LBG)에서 PM/CM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 회사는 1953년에 설립되어 30년 동안 줄곧 우리회사와 같이 종합설계회사로서 설계업무를 주 업무로 운영되어 왔으나, 1980년부터 CM 업무, 1999년부터 PM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전세계에 140여 사업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 건설링회사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직원들은 대부분 설계 및 건설경험이 많은 Generalist로서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당시 이 회사의 모든 설계 업무는 아웃소싱되어 협력회사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답변은 간단하게 말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설립 당시의 회사와는 완전히 상이한 형태의 사업과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향후 글로벌 세계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할 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사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귀를 쫑긋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근에는 지식경영, 윤리경영, 품질경영, 고객민족경영, 감성경영, 시나리오경영, 창조경영 등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이익창출과 더불어 한 시대의 경영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기법 중에서 시나리오경영은 회사 현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통하여 필요한 솔루션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보다는, 더욱 발전된, 아니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모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다른 회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받아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대체로 2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향후 10년, 20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회사의 중장기 계획에서 향후 15년에서 20년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선택하는데,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이어가기 위한 미래로 보기에는 멀고, 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구의 세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향후 20여년 후인 2030년 우리회사가 어떤 틀 안에서 유지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주변환경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틀과 연관돼 있으며, 당시 우리의 블루오션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자기계발과 변화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생활까지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현실은 분명히 그 중간 어딘가에 놓여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회사와 관련된 주변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시장이 개방된 글로벌 사회가 되어 엔지니어링 업무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이 완전히 없어진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고령 기술인력의 사회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되며, 젊은 층의 활동인력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 통신분야 발전으로 대부분의 통신은 무선으로 이루어지며, 로봇기술이 발달하여 현재 제품 생산활동 위주로 활용되던 것이 가정 및 사무실에 깊숙하게 침입하여 인간 역할의 많은 영역을 대신하게 된다. 전력분야에서는 수요가 포화되어 기존의 노후 발전소 대체 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대형 발전소의 신규건설계획이 축소되고, 전력 IT가 이루어져 송배전 분야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완벽하게 구현되며, 많은 부분에서 전력선이 없어진다.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의 상용화 및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확대가 이루어지며, 가정에서는 고효율 기기들을 사용하여 전력수요가 감소한다. 플래시 메모리의 발전 등으로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은 초소형화되고, 동시에 전세계의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검색할 수 있다. 첨단 전산망 및 통신계통으로 회사업무 및 가정 일의 모든 것이 원격제어로 이루어진다 등등..... 개인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의 일부를 나열해 본 것으로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과 더불어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어떠한 주변환경의 변화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술자가 존중 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경제적으로도 최고대우를 받는 가운데 우리 KOPEC이 세계최고의 A/E 회사가 되어 세계엔지니어링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우리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자기계발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하여 어떠한 환경변화에서도 건디어 낼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면 한다.

회사를 생각하는 자그마한 주인의식의 일부로서 노·사의 구분 없이 각자가 2030년 KOPEC의 발전된 모습과 또한 자기계발의 멋진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그려가며 다같이 힘차게 화이팅 하자.

박문빈 / 전기기술처장



제32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제32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3월 30일 본사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32기 결산승인(안) 및 감사선임(안)이 상정되어 제32기 결산(안)의 승인 및 김행영 신임 감사가 선임되었다. 이어 4월 19일 개최된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정찬기 이사가 사임하고 김진식 이사가 새로 선임되었다.

### 제3차 이사회 개최

2007년도 제3차 이사회가 지난 4월 26일 본사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사장 선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 및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이 상정되었으며 김진식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9인의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 선출되었다.

### ITER 건설사업

QA Working Group 일행 방문



제3차 이사회 개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사업 QA 책임자인 Mr. Ken Sowder, Ph.D 와 Project Office(사업관리팀) 책임자인 Mr. Eisuke Tada, Ph.D 및 ITER 사업참여 7개국 QA 담당자 등 20명이 원전 QA System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였다. 일행은 도착후 'KOPEC Quality System' 및 'Design Control and PQE' 를 주제로 1시간 동안 QA 및 QE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3D설계검증실과 MMI설계실을 방문하여 원전 종합설계 핵심기술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에서 핵융합연구센터 후원으로 진행된 제5차 QA WG 회의기간중 산업체 및 설비 방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회사를 찾았다.

### WEC와 신고리 3,4호기 인허가 지원 계약

원자로설계개발단 김동수 단장과 웨스탕하우스(WEC)의 Michele DeWitt 부사장은 지난 4월 19일 서울에서 신고리 3,4호기 인허가 지원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우리회사는 신



ITER 건설사업 QA Working Group 일행 방문

고리 3,4호기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취득하려 작성하는 예비 및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질의 중 WEC의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이에 대한 WEC의 답변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에서 WEC를 지원한다. WEC는 국문으로 수신한 인허가 기관의 질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영문 작성 답변을 국문으로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우리회사에 이 역무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11월에 사전작업 착수지시서(ATP)를 발행하였고 그 동안 우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참가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웨리톤 워커히호텔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사장 등 20명이 참가하고 원자로계측제어처 정채천 차장이 그동안 원자력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



WEC와 신고리 3,4호기 인허가 지원 계약

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상(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대회기간 중 개최된 원자력산업전시회에 회사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원전설계와 기술을 홍보하고 관련 브로셔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회사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서 약 12개국에서 많은 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자력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 참석

제42회 '전기의 날' 을 기념하여 지난 4월 10일 한전 대강당에서 열린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에서 우리회사 기획관리본부장 이종성 전무가 대통령표창을, 원자로설계개발처 김영백 처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전기기술처 장기풍 부장 및 원자로계통처 유성식 부장이 산업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우리회사 이종훈 전 사장이 우리나라 전기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공헌한 원로 전기인에게 드리는 전기인최고공로



제22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참가

탑을 수상하였다. '전기의 날' 기념행사는 대한전기협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하는 전기계 최대잔치로서, 전기계의 원로, 전국의 전기인과 일본전기협회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인의 결속과 전기산업계의 전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유공자 포상은 2년마다 시행되며, 이번 대회에서는 59명을 포상하였다. 한편 이날을 기념하여 열린 2007년 전기설비 기술기준 워크샵에서 전기기술처 기준서 부장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지난 4월 11일부터 3일간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400여명의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전력산업계 관심사인 전력IT, 극저주파 및 U-City관련 최신기술을 소개하였으며, 신기술 기준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기술기준 개편에 따른 기술지침과 규정의 도출, 국제 표준의 현장적용을 위한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 참석



두산중공업과 Management Workshop 개최



신고리3,4 국내교육훈련 실시



원전계측제어계통 워크숍 개최



한기 스폰서 핵심역량 강화교육 개최



2007년도 정기 건강검진 실시

### GS파워와 성능진단 MOU 체결

지난 3월 28일 안양에 위치한 GS파워(주)와 안양 및 부천 열병합발전소 성능개선을 위한 성능진단 공동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열병합발전설비의 성능을 진단하여 효율 및 설비신뢰도 향상, 에너지절감 등의 성능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ESCO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성능개선 방안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열병합발전설비 열효율 향상을 실현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에너지융합리화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GS파워(주)는 민간 발전사업자로서 한국전력공사와 민간 전력사업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고 안양 및 부천지역에 지역난방열을 공급, 판매하는 열병합발전 사업자이다. 이번 협약 체결이 국내 민간 열병합 발전설비에 대한 성능개선 ESCO사업 수주를 위한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두산중공업과

#### Management Workshop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과 두산중공업 원자력BG간의 제10회 Management Workshop이 지난 4월 13일과 14일에 걸쳐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원자로설계개발단장과 두산중공업 원자력BG장을 비롯하여 양사의 각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원전 I&C협력방안, NuTech 2015과제 등의 진행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가동 원전 서비스사업 협력 방안, 연구개발 사업 협력, 설계 개선 협의체 구성 등 양사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신고리3,4 국내교육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의 A/E 설계기술 업무에 대한 국내교육훈련을 지난 4월 2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다. 교육분야는 PSA 설계, 핵 설계, MMI 설계, 기계 설계 4개 과정으로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 3명,

영광 제1발전소 1명, 신고리제1건설소 1명 등 총 5명이 참가한다. 훈련의 전 과정은 전문분야별 해당업무 수행 특성에 맞추어 개별지도, 보고서 작성, 실무수행 등을 적절히 조합하되 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실무참여 위주로 진행한다.

#### 원전계측제어계통 워크숍 개최

원자로설계개발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AIST 등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원전계측제어계통 디지털 설계기술 워크숍'을 무주리조트 호텔탈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풍현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Evaluation Methodologies of Man Machine Interfaces'를 비롯하여 원전디지털설계기술을 중심으로 9개의 발표가 있었으며, 삼창 및 RTI사도 발표에 참가하였다. 특히 원전 이날로그 기기 교체 및 디지털 기기 적용, 일체형 원자로MMIS

개발, 중국 광둥 Ling Ao 원전 주제어실 환경설계 등 원전 디지털설계기술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가 진행되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기 스폰서 핵심역량 강화교육 개최

한기 스폰서(Sponsor) 핵심역량 강화교육이 지난 3월 28일 각 처실 부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GE Work-Out기법의 전사적 확산 및 정착화를 통한 우리회사 고유의 혁신브랜드 창출을 위해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혁신의 필요성 인식과 혁신추진을 위한 비전공유 및 Work-Out 프로세스에서 스폰서로서의 역할과 의무 등을 주제로 열린 강의가 이어졌다.

#### 2007년도 정기 건강검진 실시

질병의 사전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자 2007년도 임·직원 및 배우자 정기 건강검진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원래는 짝수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하던 배우자 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본사는 3개 병원(서울 광동한방병원, 분당 메디피아병원, 동수원병원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대전 원자로설계 개발단 및 기타 현장은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 탈질사업 공동수행 협력합의서 체결

지난 4월 17일 (주)퓨얼테크이씨와 국내 발전소, 소각로, 화학공장, 산업용 보일러 등의 탈질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수주를 위해 협력하기로 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주)퓨얼테크이씨는 SNCR 분야에 있어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여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이다. 우리회사가 보유한 저온 탈질촉매 (KoNOx) 뿐만 아니라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NCR)에 대해 공동수행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수

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향후 탈질분야에 대한 수주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현장사무소 신설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관리용역 현장사무소가 공항철도건설 2단계 공사 착수에 따라 발주처와 신속한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공항철도내에 신설되었다. 이 현장사무소는 공항철도 준공시까지 대 발주처와의 사업관리 업무, 설계 변경 업무, 인력 관리 업무, 사업개발 정보 수집 및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보령하수종말처리장 현장사무소 신설

보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 현장사무소가 지난 3월 30일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하수처리장내에 신설되었다. 이 현장사무소는 공사사업 종료일까지 공사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본 공사를 준공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영화의 고향 브뤼헤

글, 사진 · 이형준 / 사진가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이들을 연이어 배출했던 플랑드르 풍경은 그만큼이나 한편의 자연다큐멘터리가 연상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드넓은 들을 따라 펼쳐진 목가적인 풍광과 세월의 흔적이 녹아 있는 도시, 수시로 바뀌는 날씨 등. 이 풍경들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예술가로 성장시켰는지도 모를 일이다. 북해와 유럽대륙을 잇는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로마인들은 서기 27년경 이곳을 북해로 향하는 거점지로 삼았다. 이어 650년경에는 이미 도시의 틀을 갖춘 브뤼헤(Brugge)는 안트베르펜과 함께 플랑드르 지방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다. 일찍이 한자동맹의 주요 항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브뤼헤는 독특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이 발생한 곳이다. 여러 예술 중 으뜸은 이 고장 출신 화가들이 캔버스 위에 담아놓은 명화다. 플랑드르 화풍이 탄생한 예술의 도시 브뤼헤를 찾아가 본다.



- 01 구도심 전체가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브뤼헤 조빈 강변 풍경.
- 02 침탑의 도시로 잘 알려진 브뤼헤에 조성된 고풍스러운 건물들.
- 03 공원을 찾은 청소년들.
- 04 드넓은 초원 위에 자리한 주먹으로 대부분 중세 때 건축한 건물들이다.
- 05 브뤼헤 중류 위에서 내려다본 마르크트 광장과 도심 풍경.

도시의 관공인 기차역을 빠져나와 도심을 향하여 걷다보면 방문객을 반기는 것이 있다. 앙증스러운 주택과 상가를 이어 놓은 다리다. 브뤼헤에 다리가 많은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플랑드르말로 브뤼헤는 다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낭만적인 거리와 세월의 무게가 감지되는 건물 사이를 얼미즘 걷다 보면 사방이 확 트인 드넓은 광장에 도달하게 된다. 네오 고딕양식의 서플랑드르 주청사, 하늘을 향하여 우뚝 솟아 있는 종루 벨포르트, 장난감 박물관이 연상되는 길드 하우스를 응시하고 있는 안브레텔과 피테르 드 코니크 동상이 서 있는 마르크트 광장이다.

매력적인 명소들이 즐비한 마르크트 광장이지만 그중 으뜸은 벨포르트로 불리는 종루다. 종루는 중세 도시의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높이 84m, 폭 45m에 달하는 이 팔각형 종루는 브뤼헤가 한자동맹 도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시기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25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성된 종루는 366개의 나선형 계단을 따라 정상에 해당되는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는데 중간에 만들어 놓은 창문 사이로 바라본 브뤼헤 풍경은 브뤼헤의 역사를 전해준다.



- 06 중세 때 상업용으로 이용되었던 강변의 고풍스러운 건물.
- 07 관광객을 상대로 투어를 실시하는 보트.
- 08 즈빈 강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브뤼헤 공원.
- 09 담쟁이 넝쿨이 뽀얗게 올라간 건물.



종류 전방에서 바라본 시가지는 브뤼헤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쳐 조성된 도시인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의 거대한 플랑드르 풍경화가 연상되는 브뤼헤 풍경은 사방이 비슷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풍광을 연출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그런데 실제의 브뤼헤 풍경은 플랑드르 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풍경화하고는 좀 달라 보인다. 안 반 에이크, 보우츠가 그린 그림들이 하나같이 무거운 색상과 툴인테 반해 도시는 훨씬 밝고 잘 정리되어 있다.

브뤼헤 명소는 대개가 13~17세기 사이에 조성된 건물들로 수많은 건축물 중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곳이 성모 대성당과 흐루닝헤 미술관이다. 높이가 122m에 이르는 웅장한 첨탑이 있는 성모 대성당은 브뤼헤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1220년에 공사를 시작한지 약 200년이 지난 세월 끝에 완성한 대성당이다. 고딕과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성모 대성당은 건물도 유명하지만 진짜 자랑거리로 성당안에 장식

된 수많은 성화와 조각을 빼놓을 수 없다.

성모 대성당에 장식된 여러 조각과 성화 중 인상적인 작품은 이고장 출신의 플랑드르 화풍을 상징하는 안 반 에이크의 작품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와 미켈란젤로 작품인 '마르나와 성자'다. 플랑드르 화풍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유채화를 최초로 사용한 화가로 알려진 안 반 에이크는 브뤼헤에서 노년을 보내며 성숙한 작품을 많이 남긴 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작품은 우아함은 물론이고 구체적이기도 않지만 빛과 색의 미묘한 변화에 대한 전환이나 대담하고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성모 대성당에 있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는 그의 이런 화풍을 잘 보여주고 있어 플랑드르 화풍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당안으로 불러 모은다.

또한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인 '마르나와 성자'는 16세기 초에 제작한 것으로 해외에 유출된 유일

- 10 플랑드르 지방을 상징하는 니막신이 장식되어 있는 보트 선착장.
- 11 즈빈 강에 자리한 성모 대성당으로 그 높이가 122m에 달한다.
- 12 골목길의 노천카페.



한 미켈란젤로 작품이다. 당시 유럽 각국과 활발하게 무역을 펼치던 플랑드르 상인이 구입한 작품을 성당에 기증하면서 오늘날까지 성모 대성당에서 방문객을 맞고 있다.

성모 대성당 인근에는 또다른 명소인 흐루닝헤 미술관이 있다. 플랑드르 화풍을 상징하는 여러 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흐루닝헤 미술관은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이라면 대개가 한번쯤 찾는 곳이다. 데이베르거리에 인접한 흐루닝헤 미술관에는 14세기 풍경화부터 20세기 작품까지 제작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관 규모와 작품수량에서는 브뤼셀과 암스테르담 미술관보다 작지만 안 반 에이크를 필두로 벨링, 바이텐, 브뤼켈 등 플랑드르 화풍을 상징하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준비하게 보관 전시되고 있어 미술애호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흥미로운 사연이 숨어있는 브뤼헤이지만 최고의 매력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한 도심과 수로를 따라 펼쳐진 풍경이다. 붉은 벽들로 건축한 4~5층 건물이 빼곡한 브뤼헤 도심지역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도 현대적인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 커다란 성냥갑을 연상시키는 건물들은 골동품 상점을 중심으로 카페와 레스토랑 등 저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모습만큼은 처음 건설된 모습을 큰 손상이 보편하고 있다.

진정한 브뤼헤의 풍광을 감상하려면 유람선을 타고 둘러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자그마한 유람선에 몸을 의지하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브뤼헤가 얼마나 낭만적인 곳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중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과 정겨움이 감지되는 주택이 어우러진 풍광도 아름답지만 주변에 비해 엄청나게 높게 솟아있는 성당과 종루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두 세상을 여행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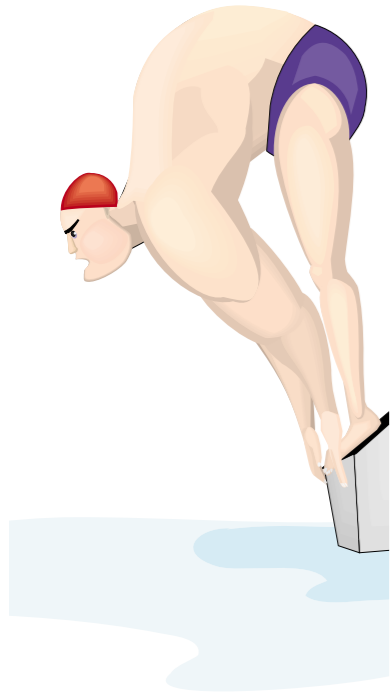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플랑드르 지방은 어느 곳에서도 접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살아 있는 고장이다. 나지막한 건물이 늘어진 도시는 전형적인 벨기에 도시들과 흡사해 보이나 조금만 벗어나면 마치 네덜란드에 와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브뤼헤에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독특한 분위기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형적인 특성과 더불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오직 플랑드르 지역이란 독립된 공간으로서 자리해 왔기 때문이다.

흔히 플랑드르 지방을 미술의 보고쯤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브뤼헤는 한지동맹을 상징하는 4대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지구촌 여러 나라와 엄청나게 많은 무역을 펼쳤던 곳이다. 더욱 13~17세기 사이에는 유럽을 총망라하여 가장 활발한 무역을 펼쳤던 곳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무역으로 벌어들인 부는 도시 건설과 함께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브뤼헤의 풍광도 대부분이 시기에 조성된 것이다.

# 과학으로 본 '마린보이' 박태환의 수영



김정훈 / 과학동아 기자



을 기대하게 했다.

지금까지 수영은 큰 키에 긴 팔다리, 넓은 손발을 가진 백인의 독무대였다. 1930년 이후 일본 선수들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가장 빠른 수영인 자유형 종목은 신체조건이 불리한 동양인들에게 난공불락이었다. 그렇기에 상대 선수와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키 182cm, 체중 74kg의 체격조건으로 박 선수가 이룬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한다. 물에 사는 동물인 인간의 물에 대한 도전인 수영에는 과학적으로 인간 신체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닿아 있다.

## 가공할 만한 막판 스피트

불리한 체격조건에도 불구하고 박 선수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결승전 경기를 관전한 사람들은 박 선수가 펼친 마지막 50m 스피트를 기억할 것이다. 350m 마지막 턴을 할 때 박 선수의 순위는 4위였는데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왔다. 마지막 50m 기록만 비교하면 당시 1, 2위였던 우사마 멜루리, 그랜트 해킷이 27초 후반대에 머무른 반면 박 선수는 26

초의 기록을 냈다. 막판 뒷심이 대단하다는 증거다.

박 선수의 뒷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선 박 선수의 특별한 신체적 조건을 들 수 있겠다. 박 선수의 폐활량은 7000cc로 일반인(3000~4000cc)의 두배에 달하고 일반 수영선수(5000~6000cc)에 비해서도 크다. 폐활량은 심폐지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 힘을 짜낼 수 있게 한다.

박 선수의 뒷심에는 적절한 체력 안배도 큰 기여를 했다. 즉 경기 초반에는 두 번 스트로크에 네 번 킁으로 힘을 안배하다가 마지막에는 두 번 스트로크에 최대 여덟 번 킁을 했다. 이 같은 킁의 안배는 막상 시합이 되면 평소 자기 습관대로 하기가 쉬운데 박 선수는 타고난 리듬감에 끊임없는 훈련을 더해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 힘을 덜 들이는 영법

전문가들은 "박 선수의 영법은 굳터터기가 전혀 없어 교과서로 불릴 만하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체력에 한

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덜 들이는 영법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박 선수는 선천적으로 신체가 매우 유연하고 부력(浮力)이 좋다. 신체가 유연하면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부력이 좋으면 몸이 뜨는데 드는 힘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좌우 근육의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다. 박 선수의 하체의 미는 힘은 왼쪽이 34.5kg, 오른쪽이 34kg으로 거의 같고, 굽히는 힘도 각각 72.9kg, 72.7kg으로 유사하다. 손의 쥐는 힘을 나타내는 악력도 왼쪽 51.17kg과 오른쪽 48.5kg으로 거의 같다. 좌우 힘이 같다는 것은 수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방향이 흐트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박 선수는 좌우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중심인 허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똑바로 직진할 수 있다. 좌우 밸런스를 깨는 변칙 영법을 구사하는 선수도 있다. 이번 대회에서 수영 황제로 등극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와 호주의 '인간 어뢰' 이언 소프가 대표적이다. 중심축은 무너지지만 체력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 상어 닮은 전신수영복

이번 대회는 기록 갱신만큼이나 유명 선수들이 입을 첨단 수영복도 눈길을 끌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처음 등장해 수영복은 작을수록 좋다는 통념을 깨뜨린 전신수영복은 이제 수영복의 대세가 됐다. 원단은 물을 머금지 않도록 돼 있고 일반 수영복보다 15%나 가볍다. 전신수영복이 기록을 단축시키는 이유

는 물의 저항을 극도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저항을 줄이는 비밀은 상어의 피부를 모방해 만든 수영복 표면에 새겨진 V자 홈이다. 사람이 맨몸으로 수영을 하면 피부 주위로 빙글빙글 도는 와류가 발생해 속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상어 피부를 닮은 V자 홈은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 저항을 줄여주는 것이다. 맨몸일 때보다 최대 20% 저항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몸을 팽 조여 근육이 더 큰 힘을 내게 하는 효과도 있다.



박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전신수영복 대신 반신수영복을 입었다. 전신수영복을 입었다가 가슴이 죄는 것 같아 바꿨다고 했다. 훈련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신수영복은 적응하는 데만 3개월 정도가 걸린다. 박 선수는 다음 대회부터는 전신수영복을 착용할 예정이며 이 덕으로 400m에 1초, 즉 1500m에 4초의 기록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 잠영으로 다관왕 도전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본인의 주종목인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박 선수가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잠영의 길이를 늘려야 한다

고 조언한다. 잠영이란 수영선수들이 물 위가 아니라 물속에서 하는 수영을 말한다. 주로 출발할 때나 턴을 할 때 하는데 물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미국의 펠프스와 박 선수를 비교하면 잠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펠프스는 턴을 할 때마다 10~11m의 잠영을 하는 반면 박 선수는 6m 정도의 잠영을 한다. 잠영이 중요한 이유는 수면 저항이 없어 가장 빠른 영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잠영이 길수록 팔을 젓는 횟수도 줄어들어 체력을 아낄 수 있다. 박 선수의 주종목인 자유형 1500m는 턴만 29회이므로 잠영의 길이가 늘어나는 만큼 기록도 크게 단축된다.

잠영을 할 때 선수들은 '돌핀킥'이라 불리는 영법을 구사한다. 발을 나란히 모으고 돌고래가 꼬리를 치듯 위아래로 물을 차며 전진하는 영법이다. 돌고래는 이 같은 방법으로 시속 36km라는 엄청난 속도로 헤엄친다. 과학자 제임스 그레이의 계산에 따르면 돌고래가 이 정도의 속력을 내려면 지금보다 최소 7배나 강한 근육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그레이의 패러독스'라 부른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레이의 패러독스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어찌됐든 돌핀킥을 잘 구사하면 적은 힘으로도 빠른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선수의 돌핀킥을 사용한 잠영이 더 길어지고 체력 보강이 잘 이뤄지면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에서 다관왕도 노려볼 만하다. 박 선수의 선전을, 인류의 도전을 기대해본다.



# 올 한해 즐길 취미는 고르셨나요?



오동명 / 칼럼니스트

아직 취미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남의 취미활동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국내 우수기업 CEO들의 취미활동은 어떤가, 살짝 훑쳐 봅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도 이해되는 이들의 취미는 다양합니다. 골프가 단연 많았습니다. 등산과 독서, 영화 또는 그림 감상을 즐기는 CEO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색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몇 분을 소개하면, LG전선의 한동규 사장은 사찰답사, 현대백화점 하원만 사장은 국궁, SK가스 신현철 사장은 폴코스도 거뜬히 뛰는 마라톤 팬이랍니다. 신세계 구학서 사장은 정원가꾸기, SK 황두열 부회장은 애완견과 산책할 정도의 애견가이며, KTF 남중수 사장은 주말에 가족과 DVD를 감상하는 게 취미라지요. LG홈쇼핑 최영재 사장은 일이 취미라는데……. 여러분도 그러한지요? 다음에 소개하는 취미는 어떨까요?

## 쓰는 중에 깨치는 뜻, 서예

중국의 대서예가 조맹부에겐 관도승이란 부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족 황실의 후예인 조맹부는 몽고가 중국 땅에 세운 원나라에 협조하면서 변절자, 배신자로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원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조맹부는 이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 수가 있었는데 바로 부인과의 교호였지요. 남편 조맹부의 부심한 심사를 알고는 아내 관도승은, 여자로서 인생부귀의 극치는 왕후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 영화는 다부질없는 것, 참 자유일 리 없으며 달을 노래하고 바람을 노래하니 이게 바로 진짜 자유가 아니겠냐는 시를 써서 남편에게 건

넵니다. 이들 부부의 사랑이 눈 앞인 양 선택합니다. 어찌 이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이던가요. 아는 한 분은 봄이 오는 이 즈음이면 때문에 開門萬福來 를 써서 붙여둡니다. 보기에도 서툰 글씨지만 그는 마냥 흐뭇하게 웃습니다. 서예를 따로 배우지 않았답니다. 한 시간 남짓 직접 간 먹을 붓에 묻혀 똑박똑박 글을 옮깁니다. 남의 글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일이지만 그 글을 옮기는 동안 그는 글의 내용처럼 마음을 정화합니다. ‘참는 중에 화목이 있다’, 忽中有和 를 쓰고 있자니 절로 마음이 가라앉고, 緣木求魚’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리 빠똥, 저리 빠똥 하지만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서예로 대성할 생각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자고 시작한 서예는 이래서 스승이 필요없었다 합니다. 그저 씩니다. 부족함을 느껴 서예교본을 하나 사서 또 그것을 베깁니다. 붓으로 글자를 옮기지만 입으로 글에 숨은 내용을 옮기지 않지요. 기분 따라, 사정 따라 쓰고자 하는 글귀가 이래서 매번 달라집니다.

우선 붓과 먹, 그리고 베틀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지가 준비되어야겠지요. 편의를 위해 간 먹을 팔기도 하지만 베틀 위에서 먹 가는 재미도 쏠쏠하니 처음부터 너무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서울의 경우 인사동 주변에 이것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합해 3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 무렵 비싼 것은 오히려 취미활동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비싼 값을 하거든요. 그 값이란 상대적인 것이어서 글쓰기를 억압하고 주눅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비싼 것 가지고 고작 이것밖

에 못 써? 서예에 더 큰 재미를 느끼거든 그때 더 좋은 붓을 고르세요. 이쯤 되면 붓 고르는 안목도 늘어 있을 테니까요.

취미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냥 즐기세요.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글을 흉내 내다 보면 어느새 글이 반듯해질 지도 모르잖아요? 그 아는 분의 집에 들면 먼저 먹 냄새가 반깁니다. 그윽한 냄새가 마음마저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분은 그 서툰 글씨를 봄이 오는 이맘때면 술 마시러 나온 친구들에게 선물합니다. 그가 건네며 하는 말입니다.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기분이 신날 거고 옷게 될 거야. 이게 복이 아닌가! 복을 들고 집에 들어가게 될 거야, 매일! 문 열 때마다 복이 드나드는 거지.”

## 만드는 기쁨, 선물하는 즐거움, DIY(do it yourself)

만드는 재미는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이후, 만화에 기웃하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 첫날,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 다들 취미 하나씩을 얘기합니다. 불현듯 당황했습니다. 취미란에 늘 ‘사진’ 이라고 쓰며 당당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건 과거일뿐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밥 먹고 사니 취미일 수가 없었지요. 대답은 해야겠고 없다 하려니 삶이 궁색해지는 것 같고,

“도장파기입니다.”  
 깔깔깔 웃어댁니다. ‘퇴직해도 문제가 없겠네. 도장집 하나 차리면 되니까’ 도장파기는 취미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주시 않은 거지요. 그런데 강사인 만화가가 자기 만화에 찍어둘 도장을 파줄 수 있냐고 진지하게 부탁해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얻고나니 정말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후 제 취미는 도장파기로 굳어졌습니다. 제 도구도 아닌 조각도로 파야 하는 한 시간 남짓 동안 손가락이 조각도에 베일까봐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잡념이 생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너무나 적절했어요. 누군가에게 그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파서 주기도 합니다. 조약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장이지요.

여기서 발전해 가구를 만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책상에 얹어 놓을 책꽂이와 같은 소품부터 만들어갔습니다. 이젠 제법

손이 빨라져서 얹은뱅이책상도 만들어 우리집 아이의 친구들에게도 선물해줄 정도입니다. 그 집 어른들이 더 좋아해서 찻상으로도 쓴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흐뭇해집니다. 내가 만든 책상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을까? 좋은 상상만 하게 되지요.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 공구가 절대로 필요해졌고 비싼 공구를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곳을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공방이란 곳인데 일정 금액을 내면 가르쳐주고 공구도 빌려주고 장소도 제공해줍니다. 빈쪽이 공방이란 곳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어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곳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세요. 저처럼 아이에게 책꽂이를 만들어주려거든 책상 사이즈에 맞춰 종이에 디자인하고 나무를 사서 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못을 박아 투박한 첫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다보면 나름의 고유 디자인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손재주를 기쁨으로 느껴보세요. 아마도 공부하라는 말보다도 아빠의 이런 선물이 아이에게 오래오래 남지 않을까요? 실속 있는 취미이기도 하지요.

아내의 화장대가 아이 나이만큼 먹어서 꽤나 추리해보입니다. 콘솔 같은 화장대는 아직 재주가 부치고 해서 옛 조선시대 여인들이 썼을 얹은뱅이 화장대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문제는 거울이었는데 우리집에 부탁하니 맞춤 마냥 제 사이즈로 재단해서 주더군요. 별로 비싸지 않은 이천 원을 받더라고요. 손잡이 등 액세서리를 철물점에서 구입했습니다. 내 키가 아닌 아내의 얹은키만한 높이로 거울을 붙이고 보기 편하게 거울을 뒤로 20도 정도 눕혀봤습니다. 했더니 얼굴이 가름해 보이더라고요. 서랍을 만드는 일은 꽤 숙달이 요구되는데 이번엔 하나만 달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랍이 깊어서 로션 등 긴 화장품들도 넣어둘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의 크기를 미리 재어두는 게 필수겠지요. 어설피지만 내가 만들었다는 신기함에 빠져 기분이 날 듯 합니다. 그래도 아쉬워서 이 한 구절을 종이에 적어 거울 위에 붙여둡니다.

“다음엔 의자 딸린 콘솔을 만들어줄게.”  
 가장 짝맞춤,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긴 미래를 준비하는, 아내 향한 약속입니다. 아내는 다시 애인이 됩니다.

#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디지털 놀이터

김충태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부장

엑박과 플스라는 말이 있다. 아마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낯이 익은 단어일 것이다.

엑박은 xbox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게임기이고, 플스는 소니사의 Playstation 게임기를 말한다. 현재 전 세계 게임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게임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만큼 두 진영의 신제품 개발과 가격 경쟁은 심심치 않게 뉴스의 초점이 되곤 한다.

최근에는 기동성과 휴대성이 강조되는 현대인의 취향에 맞춰 손에 들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휴대용 포터블 게임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엑박과 플스

는 아무래도 TV에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포터블 게임기를 보면 게임기라기보다 만능의 디지털 기기라는 생각이 든다.

생생한 3D 그래픽 게임을 위해 고사양 CPU를 채택하고 높은 칼라수의 TFT LCD와 디지털 사운드라는 물론, 여기에 동영상 플레이어, MP3, 전자책, 전자앨범 기능을 갖고 있어, 어찌 보면 고가의 PMP보다 휴대용 게임기 하나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 수 있다.

사실 예전에는 게임 하면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대부분 부모들이 시주를 꺼려했지만 최근에는 게임기가

아이들 수학적 사고나 논리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서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미활동의 하나로 권장하는 부모도 있다. 특히 일부 통계자료에 게임이 자녀의 새로운 기술, IT 트렌드 습득과 수학, 과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게임이 폭력성을 키우고 공부에 방해만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일면만 부각한 옛날 얘기라는 생각도 든다.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일일 테니까 말이다.

게임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도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잘못 되었다는 것



닌텐도 DS



GP2X

을 알 수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는 3천5백만명 정도인데 이중 게임 인구가 약 2천만명 된다고 하니 인터넷 사용자 열 중 여섯꼴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상 사용자도 400만 명가량 된다고 하니 게임은 성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게임은 인터넷과 함께 IT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디지털 놀이터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디지털 놀이터를 장만할 때 참고해 보자.

요즘 인기있는 휴대용 게임기는 일본 소니사의 PSP와 닌텐도 DS, 그리고 국내 개발제품인 GP2X가 있다. 가격은 전부 10~20만원대로 대부분 게임 기능 외에 동영상 플레이어, 전자책, 전자앨범, MP3 등 소위 PMP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국내 개발제품인 GP2X는 에뮬레이터를 통해 네오지오, mame, 메가드라이브, 패미콤 등 수백개의 게임을 무료

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PSP나 닌텐도는 전용 게임 외에 영어 회화, 토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해서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 일본에서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국내에서도 장동건을 모델로 등장시켜 선전한 게임이라 새로운 IT기이라면서 관심이 있던 차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다. 게다가 자신의 뇌 나이를 측정할 수 있고 게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번 해봐야지 마음먹고 있던 중이었다.

기위바위보 및 곱하기 시간계산 등의 기초적인 문제를 내어 오답 수와 답하는데 걸린 시간을 통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 연령을 측정해주는 게임인데, 구입하고 바로 나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뇌력을

측정해 보았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은 자신의 나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나는 실제 나이보다 20살 적게 나왔다. 컴퓨터를 자주 만져서 그런가? 그동안 새로운 IT기술이라면 한번씩은 해봐야 성에 차 하는 걸 두고 편견도 많이 들었는데 이 일로 잠깐이나마 어깨도 펴고 큰소리도 한번 내봤다. 게다가 이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도 몰라도 아무튼 젊다고 하니 기분은 좋다. 이제 게임기는 치매 예방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놀이터이다.



PSP



흔히 차이점이 시너지를 만든다고 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5명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연주를 하면 시끄러워서 들을 수 없겠지만 종류가 다른 5개의 악기를 모아놓고 5중주로 연주하면 아름답고 환상적인 화음을 들을 수 있다. 서로의 차이점을 상호 보완해 줌으로써 각 개체가 지닌 능력 이상을 발휘하여 전체적인 상승효과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여기 각기 다른 개성과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 상호존중과 배려로 제로섬이 아닌 시너지를 발생시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팀워크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신월성1,2호기 원자로 계통설계사업관리팀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신월성 1,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통상 국내 원자력발전소 명칭은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건설될 신월성 1,2호기는 행정구역상 명칭이 아니라 '월성'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칭은 신라시대에서 유래한다. 신라시대 초기에 궁성(宮城)이 해님의 아들이 있는 성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광원 부장, 김영보 차장, 김영백 차장, 박지덕 부장, 허진 부장, 정상호 부장, 김교상 부장, 김범식 차장, 박철우 차장, 장우현 부장, 구준모 부장, 윤상철 차장, 김화분 대리, 황일선 과장, 이득수 차장, 서계화 씨, 이대희 부장, 김정만 차장, 김봉기 부장.

# Teamwork

황일선 / 원자로계통처 과장

## 신월성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관리팀

이란 뜻의 금성(金城)과 달님의 아들이 있는 성이란 뜻의 월성(月城) 이렇게 두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 월성이 그 지역의 지명이 되었고 1989년까지 월성으로 불리다가 이후 경주군, 경주시로 통합 및 개칭되었으나 원자력발전소가 이 이름을 이어오고 있다.

천년고도 경주시에 위치할 신월성 1,2호기 원자력발전소 인근은 예부터 그 지방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여근곡(女根谷), 남근산(男根山)과 같은 특이한 전설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를 비롯한 기림사, 감은사지 삼층석탑, 문무대왕 수증릉 등 민족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각종 찬란한 문화유적의 산실이다. 여기에 최첨단 설비가 갖춰진 21세기형 원자력발전소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문화유산과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 건설될 예정이다.

신월성 1,2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의 설계개선사업을 통한 종합적인 설계개선으로 기술성, 안전성과 경제성을 한층 제고하여 경쟁력이 향상된 개선형 표준원전(OPR+)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과 부지문제 등으로 수차례 공기지연 등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05년 9월 30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부지정지 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 건설허가를 취득하고자 모든 관련사들이 합심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신월성 1,2호기는 국내 23번째와 24번째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로 2011년 10월과 2012년 10월에 각각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원자로설계개발단 신월성 1,2호기 원자로계통설계사업관리팀은 안전하고 완벽한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고객만족을 최상의 목표로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기술인 핵증기공급계통 설계와 중소용역 사업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대·내외 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직장생활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특히 상하직원 간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근무환경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신월성1,2사업부는 무엇보다도 '사람존중'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며 직원 상호간의 격려와 배려, 사랑과 존중으로 언제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늘 웃음과 풋풋한 정이 넘친다.



소속 구성원으로는 사업책임자 이득수 처장, 사업부책임자 김영백 처장, 기술조정책임자(1) 김영보 차장, 기술조정책임자(2) 허진 부장, 고객지원분야책임자 박태근 부장, 품질보증책임자 정상호 부장이 있다. 기술관리분야는 분야책임자 박지덕 부장과 박철우 차장 및 본인이 팀을 이루고 있으며 설계분야는 원자로계통분야 이대희 부장, 원자로계통 제어분야 구준모 부장, 원자로안전분야 이광원 부장 등이 설계분야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행정업무는 행정책임자인 윤상철 차장과 김교상 부장 및 김희분 대리, 서계화 씨가 팀을 이루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소용역 기술분야에 김범식 처장, 김정만 차장, 장우현 부장 및 김봉기 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그 만큼 칭찬은 누구에게나 큰 힘이 된다는 뜻이다. 특히나 신월성1,2 사업부에 대해 칭찬하고픈 것은 각 구성원들이 사업부 운영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지향, 도전정신 그리고 사람존중"을 핵심가치로 삼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부는 사업의 대·내외 기관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상 바쁘다. 특히 외부기관으로부터 까다로운 기술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일한다. 또한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업무개선을 제안하고 내가 우리회사를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으로 고객을 대한다. 이렇게 늘 바쁘다보니 짜증낼 만도 하지만 각자의 웃는 얼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팀워크는 팀의 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이라 말한다. 배구, 축구,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 한 사람의 뛰어난 활약상은 세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우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리 개인의 실력이 좋아도 팀원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공동의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결같은 쉽게 끊어질지라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업부 각 구성원은 서로의 강점을 발휘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주어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 가을역 근처

김미예 / 토목기술처 최만기 차장 부인

목요일의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길을 떠난다.

마음은 벌써  
별을 씻는 개울처럼  
결마다 다른 빛깔을 지어내고

씻물처럼 녹아드는  
시슬같은 감정들과  
낙엽빛 물드는 발걸음 사이엔  
떠도는 구름으로 적셔진  
기차의 낮은 목소리.

계절의 이정표 안에  
바람은  
긴 기다림의 불빛으로  
또아리를 틀어  
멀게 끌던  
꽃물을 지워버린다.

아직도  
역(驛)의 머리카락 안에  
비둘기는  
깃 하나로 머물러 있고.

목요일의 성(姓)을 가진 사람들은  
길을 떠난다.



# 기계

이형찬 / 구갈초등학교 3학년, 기계기술처 이상민 자녀

기계는  
생각이 있을까?

기계는  
심장이 있을까?

기계는  
마음이 있을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기만 한다.

난,  
기계가 불쌍하다.



# 소렌토로 가는 길

임정현 / 원자로계통처 대리

내가 노자 도덕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歸根귀근’ 이잖아.

‘그 뿌리로 돌아가는 고요함  
나, 유럽 문명의 뿌리가 보고 싶었어.

그 뿌리를 본 소회란, 먼저 내가 시카고나 LA의 거리를 걸었을 때의 놀라움이 아름다운 파리를 보았을 때 무척 작아졌어…….

다시 그 파리가 작은 하나의 동네로 바뀌는 것을 이탈리아에 와서 느끼게 되었지. 나라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 할까. 아니 이탈리아는 거대 관광산업단지였어.

경주를 ‘울타리가 없는 박물관(museum without wall)’이라 하잖아. 하지만 솔직히 그 비유는 이탈리아에 맞을 듯한 느낌이 들더구나.

나에게 이탈리아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묻는다면,  
‘애 천년고도 로마에 낙랑장송이 웬일인가!’

경주 남산의 소나무, 속리산과 해인사, 강원도에서나 볼직한 우람한 소나무가 이탈리아와 로마 시내를 뒤 덮고 있지 않은가!

철갑을 둘러싸고 투구를 머리에 인 듯한 정이품 소나무가 로마의 가로수라니……. 그레 여기 로마에서 로마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나무는 올리브 감람나무나 오렌지나무가 아닌 푸른 소나무였어. 바티칸 시국에서 본 장엄한 건축물도 솔방울을 상징하여 만들었나?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 보았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소나무를 그리 사랑하느냐고?’ 이탈리아에선 소나무가 영광과 승리와 기상의 상징이라는 답이 돌아왔어. 한국에선 한(恨)과 절개의 소나무인데. 이렇게 소나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또한 크더구나. 물론 따뜻한 나라의 소나무는 무엇인가 다른 느낌을 준다.

소렌토로 가는 길, 버스 차창에서 바라본 고대 로마의 길 아피아 가도(Appian way)에도 줄지어서 들쭉 달리는 것은 끝없는 소나무의 질주였어. 창문 밖으로 보는 풍경은 제주도의 애월이나 한밭의 봄 들녘처럼 너무나 한국과 닮아 있더구나. 푸른 초원과 밀밭에 흩어져 풀을 뜯는 양떼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한국의 어떤 국도를 달리는 듯한 착각에 빠



졌을 거야.  
노란 유채꽃이 펼쳐졌다가 군데군데 백목련, 청목련이 터져 나오고 분홍빛 복숭아꽃과 벚꽃이 피어나다, 하얀 매화가 만발하고 다시 녹색의 파란 밀밭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의 봄빛은 우리의 그것과는 조금 달라. 우리가 좀 수줍은 듯 은은하다면 여기는 더 환한 밝은 빛의 당당함이라 할까.

유럽 문명이라는 존재. 이 밀도 높고 찬연한 대리석 경질 앞에서 개나리와 벚꽃과 소나무가 내 눈에 이리 밝히다니. 우리 아시아인의 눈에 거대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 우유 빛 강도의 대리석은 나의 연한 피와 살을 떨리게 하였다. 돌과 나무와 진흙과 기와로 지어 올린 경주에서 남은 것은 많지 않잖아.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던지, 파괴되었는지, 사라졌는지 우리의 눈과 피부로 느끼는 흔적은 참으로 약하거나 희미했었어. 그런데 왜 지금 내 머리 속에는 경주 박물관 정원의 머리가 없거나 머리만 남은 부처상이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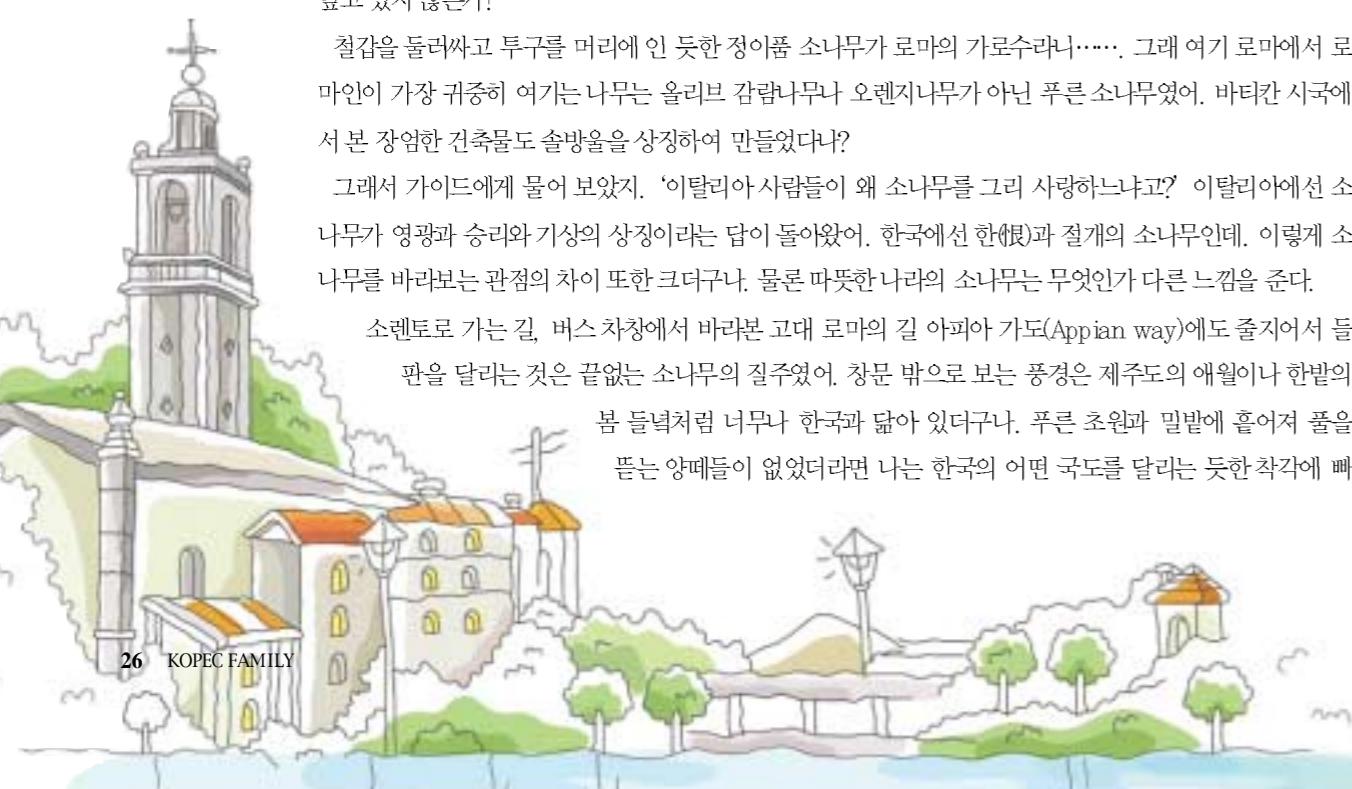
내구성! 대리석이란 밀도 높은 돌덩어리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 깎고 다듬고 조각한 유물 앞에서 장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국가보다는 도시, 나라보다 민족, 그리고 자기가 쓰는 말에 대한 무한한 애착. 그런 나라들이 국경을 마주하고 다닥다닥 붙은게 유럽이란단.

소렌토로 가는 길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가장 아꼈다는 마파리(Mappari : 꿈과 같이) 성악곡을 엘리꼬 라는 젊고 잘생긴 운전기사가 들려주었다. ‘꿈과 같이’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는 햇빛을 받은 아침의 고요함 속에, 성당의 종탑에서 나는 소리마냥 자박자박 꿈길에서 들려오는 듯 귓전에 잠시 울려 퍼졌다.

그레 내가 이탈리아에서 본 찬란한 역사도 며칠 밤 아름다운 꿈의 ‘환(幻)’ 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견고한 대리석 틈 사이에서 한 줌의 푸른 이끼나 풀잎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허물어져 가는 폼페이와 소담한 돌담 아래 빵 굽는 돌 시루, 뜨거운 용암 불구덩이 속에서도 두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이름표를 남녀의 화산 유적에 오히려 감동하는 나는 아무래도 아시아적 정서를 떨쳐버리지 못했나봐. 그러기에 내 눈에 개나리, 백목련의 꽃망울 터짐이 유난히 스며들었는지도…….

‘그 뿌리로 돌아가는 고요함’ 은 서리벌의 깨어진 기와 막새에도 로마의 금이 간 콜로세움의 원형경기장 담 벽에서도, 이상하게 함께 숨겨져 있었다는 걸 본 게 아마 이번 여행의 수확이랄까…….

다음에 프라하에서 너에게 또 편지하러다. 많은 연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프라하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보게 된다면 어릴적 동네 작은 산등성이에서 내려다보던 소박한 밤풍경에 대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 다음 정차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정재형 / 기계기술처 차장

H군은 커다란 눈으로 멍뚱뚱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엄마가 싸준 옷가방을 가슴에 신중단지 마냥 끌어안고서 진한 녹색 천으로 만든, 등받이의 번들거리는 윤기가 꽤 많은 사람들이 앉았었음을 짐작케 하는 2인용 의자에 앉아 그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구나! H군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다. 방금 전 기차를 타기 위해 표를 산 것부터 개찰구 라고 적힌 곳 앞의 기다란 줄 속에 서서 기다린 후 아래위 회색 유니폼의 역무원 아저씨에게 표를 주고 선 편칭 후 다시 받는 일 그리고 그 표에 적힌 열차번호와 좌석 번호를 찾는 일까지 모두 그에겐 처음 있는 일이었다.

H군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이다. 설날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 그것도 밤 12시를 넘긴 한밤중에, 촌스럽기까지 한 주황색 페인트로 몸통에 줄을 그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은 내일이 바로 대입원서접수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기차 출발

전 객실 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역무원 아저씨의 커다란 목소리에서 출발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차는 밤 12시 15분에 부산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에는 새벽 5시 45분에 도착한다. 긴장도 되고 해서 잠이 잘 오지 않겠지만 5시간 30분의 긴 시간을, 그것도 밤부터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는 잠을 청하는 것 외엔 달리 할 일이 없어 보였다.

출발 전의 들뜸과 분주함이 가라앉을 즈음 갑자기 H군은 그의 옆자리가 빈 것이 눈에

들어 왔다. 순간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아니면 나 같은 수험생? 누가 나의 이 밤기차 여행의 동반자가 될까? H군의 그 궁금증은 기차가 서서히 출발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부산역을 출발한 후 1분이 지났을까?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어기 2호차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학생이 보였다. 옛된 얼굴에 두 갈래로 뚫은 머리, 겨울 동복 위에 입는 롱코트까지 틀림없는 여고생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자기 자리를 연신 찾고 있었다. 차표에 적힌 숫자와 좌석 위 금속 명판에 새겨진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말이다. 점점 H군의 자리에 가까워지면서 H군의 가슴은 이유 없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아! 이 여학생이 내 옆자리에 앉는구나! 바로 쳐다보지는 못하고 가까이 가서 결눈질로 보니 얼굴도 아주 예쁜 것 같았다. H군의 알 수 없는 기대는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좌석 표를 확인한 그녀가 그녀의 자리가 아닌 듯 H군의 자리를 뒤로한채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순간 H군의 맥도 힘없이 풀려 버렸다. 과연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까? H군은 그녀가 지나가는 뒷자리들을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객실 거의 끝까지 갔던 그녀가 돌아서더니 지났던 길을 되밧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H군은 황급히 몸을 바로하고선 시치미를 떼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향긋한 인기척이 다시 그를 지날 때 얼마나 굳었던지 허벅지까지 빠근해 와서 쥐가 날 정도였다. '잠시만요' 하는 목소리. H군은 환청인가 의심했지만 분명 그의 옆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청아한 이 목소리, 아리마운 그

녀가 옆에서 있었다. 석고처럼 굳어버린 몸을 비켜 자리를 내주니 그녀가 바로 2호차 47번 좌석의 주인공이었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H군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니, H군은 시간이 멈춘 듯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애꿎은 침만 푹푹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잠은 진작 달아나 버렸다. 오히려 더욱 또랑또랑한 눈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지경이었다. 옆의 그녀는 이미 잠에 빠져버린 지 오래되었다. 진한 남색 코트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앞뺨게도 머리킥락 하나조차 H군 눈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 H군의 머리는 한없이 복잡해졌다.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란 생각에까지 미치지 않나 신경을 썼던지 허기가 밀려왔다. 사실 지나가는 홍익회 아저씨 손수레의 우유며 빵, 꿀과 달걀 등이 H군을 유혹한 건 열차출발 두어 시간 이후부터였다. 하지만 H군에겐 우유하나 사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나만 사도 될까? 아니지, 이럴 땐 TV를 보니 옆 사람에게도 권하더라고. 그러니 두개를 사야지! 근데, 싫어하면 어찌지? 잠 깨웠다고 짜증내면 내가 무안할 텐데.'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자 소심하던 H군이 돌변했다. 바나나 우유 2개, 용기가 원추형인 우유는 H군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였다. '저, 이거 하나 드시죠.' 잠에서 잠시 깬 그녀가 차창 밖 야경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떨결에 H군의 바나나우유를 받아들었다. 지금 와서 알았지만 그녀도 대학입학을 앞둔 수험생인 모양이다. 그녀의 자리 옆 차창 쪽에는 입학원서로 보이는 하얀 봉투가 세로로 서 있었다. 상단에는 '서울특별시○○구' 라고 적힌 주소가 있었고 '○○대학교' 라는 글씨도 눈에 들어왔다. '아,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H군은 그리곤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또다시 무심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 다음 할 말을 준비하지 못한 채 우유를 건넨 자신이 이처럼 미울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아! 어디까지 가는 지 물어 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번득 들었다. '저, 어디까지……?' 그러나 H군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이미 그녀는 얼굴을 롱코트로 완전히 가린 채 또다시 깊은 동면에 들어간 것이다. '무슨 잠을 이렇게 많이 자는 거야?' 깨워도 볼까 하다가 이미 시기를 놓친 후였다. "휴" 용기를 내느라 긴장했던지 한

숨이 절로 나왔다. H군과 그녀 사이의 좌석 중간 귀퉁이에는 노란색 바나나 우유가 H군을 비웃 듯 쳐다보고 있었다.

기차는 철쭉 속에서 '탈각탈각' 소리를 내며 이름 모를 정차역에 섰다 가기를 반복하였다. 그녀와 그의 기차는 종착역인 서울역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기회가 올 거야! 서울역에 내려서 얘기하면 되지 뭐! 아니, 내리기 전에 얘기는 먼저 터놓아야 할 거야! 그래야 역을 빠져 나오면서 얘기할 때 한결 편할걸?' H군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시간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새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5시30분! 이제 종착역까진 15분 남았다. 그녀는 아까부터 일어나 새벽을 준비 중인 듯했다. '이 때쯤 얘기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몸을 돌리려 할 때였다. 밤새 무심코 흘러들던 역무원 아저씨의 안내방송이 갑자기 또렷이 들렸다. '열차, 다음 정차역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차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에서 내리시는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서울 다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종착역인 서울역 전에 또 다른 정차역이 있다는 건가? 그 때였다. 옆의 그녀가 주섬주섬 선반 위와 좌석 주변의 짐을 바빠 챙기더니 H군 앞을 '훅' 지나 객실 앞쪽으로 총총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순간이었다. 열차에서 내린 그녀는 다른 승객들과 섞여 빠르게 역을 빠져 나가고 있었다. 아마도 창가자리로 자리를 옮겨 창문너머로 그녀의 뒤를 계속 응시하고 있는 H군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열차는 H군이 어찌해볼 틈조차 주지 않고 순식간에 영등포역에 그녀를 내려놓더니 마지막 힘을 쏟아 부어 황급히 그녀의 그 역을 떠나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47번 좌석에는 따지도 않은 채 뚜껑이 그대로인 노란색 바나나 우유가 옆으로 쓰러져 누워 있었다.

기차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서울역에는 아직 여명이 없었다. 처음 맞는 12월 서울역 앞 새벽의 시리도록 싸늘한 바람이 H군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왔다. 서울날씨가 춥다고 잊겨덕에 엄마가 챙겨준 오리털 파카가 아니었으면 정말 추웠을 것 같았다. 지하철로 걸어가는 길에서 그제야 H군은 알았다. 서울에는 서울역 말고도 영등포라는 몹쓸 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족 만세'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직원 가족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홍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기술처 최만기 차장 가족 여덟 번의 이사

올해로 결혼 17년차,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한지는 5년이 되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오기까지 우리 가족은 이사를 여덟 번이나 해야 했다. 요즘이야 포장 이사라고 해서 이사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신혼살림에 조금이라도 야끼려고 일반이사를 고집했다.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2주일 전부터 동네 슈퍼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알맞은 크기의 종이상자를 얻어와 크지도 않은 집 한켠에 쌓아놓았다. 이사 가기 일주일 전부터 아내가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밤늦은 시간까지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나의 몫이다. 이사하기 이틀 전부터는 상자 속에 물건이 이사 중에 다치지 않도록 잘 묶는 작업을 밤새하고 출근하곤 했다.



두 번째 이사는 영광으로 향하는 길, 지금 큰아이 민정이가 3살 때였다. 아내는 3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직장에 나간 사이에 그렇게 이사준비를 다해놓았다. 그런데 영광으로 이사 가는 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천둥 번개와 함께 점점 더 심해졌다. 어쩔 수 없이 이사는 시작했는데 더 큰 문제는 비 오는 날은 아파트 곤도라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아파트 관리실 아저씨의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조그만 짐은 엘리베이터로 옮겼지만, 장롱하고 장식장은 비를 맞으며 빗줄로 이어 겨우겨우 이삿짐 차에 실었다. 장롱이 비에 흠뻑 젖은 걸 보고 아내의 표정은 울상이 되었다. 다행히 영광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그쳤지만, 이삿짐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버렸고, 주위에 슈퍼마켓 하나 없는 캄캄한 사택을 보고 아내는 또 한번 울상을 지었다. 그 후 여러 번 이사를 더했지만 그때 상처 난 장롱의 흔적을 보며 지금의 이사쯤이야 하며 힘을 내곤 했다. 그 사이에 둘째 상욱이가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났고, 잦은 이사로 큰아이 민정이는 친구들과 이별과 새로운 만남이 반복되었다. 아내는 그때마다 아이들을 위로하고 현명한 길로 인도하였다. 이제 큰아이 민정이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아이 상욱이가 중학교 1학년, 여덟 번의 이사를 하면서도 사랑스럽고, 건강하고 맑게 자란 아이들을 보며 아내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최만기 / 토목기술처 차장





미군과 전쟁고아, 영국 런던, 1943년  
ROBERT CAPA © from 2001 to 2007 By Cornell Capa/Magnum Photos/유로포토-한국매그넴



병사의 죽음, 스페인 세로 무리아노의 코르도바 전선, 1936년 9월 5일  
ROBERT CAPA © from 2001 to 2007 By Cornell Capa /Magnum Photos/유로포토-한국매그넴



소년유격대 장례식에서 어머니들의 절규, 이탈리아 나폴리, 1943년 10월 2일  
ROBERT CAPA © from 2001 to 2007 By Cornell Capa/Magnum Photos/유로포토-한국매그넴



알프레드 히치콕의 오명에 출현을 맡은 잉그리드 버그만, 미국 할리우드, 1945년  
ROBERT CAPA © from 2001 to 2007 By Cornell Capa/Magnum Photos/유로포토-한국매그넴



위 |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오마하해, 1944년 6월 6일  
ROBERT CAPA © from 2001 to 2007  
By Cornell Capa/Magnum Photos/  
유로포토-한국매그넴

아래 | 카파 최후의 사진, 인도차이나 전쟁, 1945년 5월 25일  
ROBERT CAPA © from 2001 to 2007  
By Cornell Capa/Magnum Photos/  
유로포토-한국매그넴

## 포토저널리즘의 신화 - 로버트 카파

세계최고의사진작가 그룹인 매그넴(MAGNUM)을 창립한 실질적인 대표이자, 사실적 증인을 위한 투철한 기자정신을 일컫는 카파이즘(Capism) 용어의 주인공 로버트 카파(Robert Capa 1913-1954)의 작품 14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가 5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스페인 내전 중에 '병사의 죽음'을 촬영하여 전세계에 이름을 알린 로버트 카파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지뢰를 밟아 41살로 요절하기까지 20세기의 거의 모든 전쟁터를 중군하며 때론 군인보다 직진 깊숙이에서 전쟁의 역사와 상처를 렌즈에 오롯이 담아냈다. 특히 1936년 스페인 내전 중 총에 맞아 쓰러지는 병사를 찍은 '병사의 죽음'은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더불어 스페인 내전을 다룬 불후의 명작이자 20세기 가장 대표적 전쟁 기록 사진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전쟁터의 사실적 묘사와 그로 인한 군인과 시민에 미치는 엄청난 충격 모두를 충분히 소화해 낸 그의 작품을 통해 20세기의 현실을, 사진사속에서의 사실성, 현장성, 직접성이라는 사진미학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Robert Capa, 파리의 어느 카페에서, 1952년, 루스올킨 촬영

# FTA가 초래할 경쟁의 실체는

유병률 /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1년4개월간의 협상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초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물론 정식 발효가 되려면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비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FTA는 한국경제 전체로 보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위기의 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FTA가 개개인들의 삶도 크게 흔들어놓을 거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FTA는 곧 사회 구성구석 경쟁의 가열을 의미하고, 경쟁 가열은 곧 구조조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 비교우위론과 FTA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 FTA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은 해당 국가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가 1817년에 체계화한 '비교우위론'이 그 이론적 근거입니다.

비교우위론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시아 최고의 타자인 이승엽은 한때 투수였습니다. 계속 투수를 했더라면 박찬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웬만한 투수보다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승엽만큼은 안 돼도, 웬만큼 던지는 투수가 있다고 해보죠. 이승엽은 이 투수에 비해 타자로서도, 투수로서도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엽이 투수를 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이 선수보다 훨씬 큼니다. 이승엽은 타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엽은 투수는 이 선수한테 양보하고, 자신은 타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즉, 이승엽은 타자나 투수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선수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 입장에서는 타자나 투수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투수에 관한 이승엽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수를 포기한 데 따른 기회비용이 이승엽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엽은 타자를 하고, 이 선수는 투수를 하는 게 두 사람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비교우위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특정한 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각 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특화해서 수출하고,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은 수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을 수출하고, 오픈지를 수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경우 무역에 따른 이득이 당사국간에 똑같이 배분되지는 않겠지만,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미 FTA는 바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던 무역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EU)처럼 시장을 아예 완전 통합해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관세나 제도 등에서 장벽을 걷어내는 장치입니다. 양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서로 집중해서 상호이익을 증대 시키지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과 미국 기업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은 경쟁력을 더 높이지 않는 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이 덜할 때는 다른 동료들에 비해 절대열위나 비교열위에 있어도, 혹은 비교우위만 있어도 그럭저럭 보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공존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비즈니스가 국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면 웬만한 비교우위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 사회 곳곳 구조조정 불가피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질서 재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원산지이자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 곧 시장 단일화는 정부와 기업, 국민 개개인을 지배하던 기존 게임의 룰이 새로운 질서로 대체됨을 뜻합니다. 이 새로운 룰의 요체는 바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쌓든지 아니면 도태하든지'의 야성(野性)의 법칙입니다. FTA가 몰고 올 경쟁을 닫고 일어서면 한국은 마이너리 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영전하겠지만, 경쟁에 치여 뒤쳐지는 분야는 리그 자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FTA 체결은 곧 한국사회 구성구석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단순히 자르고 내 보내는 말초적 구조조정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살아 남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경쟁에서 밀리면 아예 탈락하는 근원적 질서재편의 구조조정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로 농업부문 피해규모는 1조~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공산품 가운데 584개 품목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곧 국민 개개인들의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FTA로 한국에 떨어지는 경제적 파이가 커진다 해도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에만 이익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주목해야 할 것도 바로 FTA가 비즈니스, 창업, 취업, 직업 등 한국 경제 구성구석에 엄청난 경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쟁의 원리는 사실 대단히 비정합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습니다. 패자에 대한 보상은 사후적인 정부정책의 결과일 뿐이지, 경쟁 그 자체에는 보호본능이란 없습니다. 세계화를 촉진할 FTA는 이런 경쟁을 더 가속화할 겁니다.

## FTA가 초래할 경쟁의 실체

그러나 FTA로 인한 경쟁가열은 국민 개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비즈니스와 직업이 새롭게 각광 받으면서 오히려 계층간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가열되고 그래서 구조조정 압력도 높아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겠지만, 단순히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은 버려야 합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고 서비스화하면서 그 틈새를 파고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는다면, 기존의 고착화된 직종별, 직업별 양극화 질서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 등 선진 기업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것인데, 이들 기업들은 오히려 여성을 우대하는 여성 친화적 경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화를 계기로 성(性)을 따지지 않는 문화는 우리 기업에 더욱 확산될 겁니다. 의리와 충성심으로 평가 받는 사회가 지식과 아이디어로 평가 받는 시대로 바뀌는 것 또한 여자 분들에게는 호재입니다. 머리 쓰는 분야에서 양성 차별을 운운할 계재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의 기득권구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냐'보다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근데,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화가 진전되면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지면서 이런 기득권 구조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직장 들어가 자기개발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물려 받은 게 없어 쪼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은 더 커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동료들과 비교해서 어떤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슷한 능력을 가진 후배들이 쫓아오고, 비슷한 업무가 외국에서 수입되도 살아남을 만하십니까.

# 우울증, 알고 대처하자

황세희 /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내가 우울한 걸까? 사회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걸까. ‘우울’이란 단어가 사회 전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학생도 직장인도, 노인도 우울증을 앓는다. 중·고등학생은 입시 압력이, 대학생은 취직 걱정이, 직장인은 고용 불안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은퇴자는 사회활동을 못해서 노인은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에 시달리다 보니 우울해지기 쉽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드는 우울증, 알고 보면 평생 유병률이 10% 이상일 정도로 흔한 병이다. 윈스턴 처칠,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버지니아 울프, 티퍼 고어(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부인)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도 이 병을 공통적으로 앓았다.

## 우울증의 정체

화사한 봄꽃 향연이 한창인 지금,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슬픔을 느낀다면, 웃고 즐겨야 할 순간에도 즐겁지 않고 산해진미를 봐도 식욕이 없다면, 하고픈 일은 하나도 없고 해야 할 일은 도무지 집중해서 해내기 어렵다면 심지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란 생각마저 해봤다면 당신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감정과 행동에 변화가 초래되는 ‘뇌 질환’이다. 즉 의욕·재미·흥미 등과 관련된 도파민, 우울·불안·초조 등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민

첩성을 나타내는 노아에피네프린 등 세 종류의 신경전달물질이 모두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질병처럼 약물 치료로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며 치료효과도 좋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우울증을 마음 약한 사람이 앓는 병,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병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오해다.

##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

우울증을 방지하면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마음이 울적하고 세상만사가 덧없고 귀찮아지니 주변 사람도 멀어지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의 예를 보자. 성인이 된 후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청년 링컨은 결혼식 날조차 초청한 하객을 뒤로한 채 방에 틀어박혀 자신의 무가치함과 절망감,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이 시기에 링컨은 일상에서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CBS 방송국의 명편집자인 마이크 웰리스는 우울증 치료를 일찍 받아 극복한 경우다. 어느 날부터인지 잠이 잘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던 그는 차츰 절망감에 빠지면서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빠졌다. 다행히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그는 아내와 함께 곧 병원을 방문, 약물 치료를 시작해 정상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전문가의 지시대로 꾸준히 치료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우울증은 종류도 다양해

우울증의 양상은 다양하다. 어떤 환자는 의욕이 없고, 먹고 자는 사소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한다. 반면 또 다른 환자는 일 욕심은 있어 보이나 매사 ‘나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비관적 사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우울증은 가족이나 연인과의 이별, 실직·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증적 우울증으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울적한 마음상태가 문제라는 인식은 하며 개선되기를 원한다. 반면 증세가 가장 심한 형태의 우울증인 주요 우울증(정신병적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자신의 마음상태가 병적이라는 인식조차 없다.

기분이 들뜨는 상태(조증)와 가라앉는 상태(울증)가 공존하는 조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우울증도 있다. 조울증 환자는 조증 상태에서 울증 상태로 넘어가면서 자살률이 높다.

65세 이후 노인이 앓는 노인성 우울증은 여기저기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등 신체적 불편함을 주로 호소한다. 또 민첩성이 감퇴돼 기억력, 집중력이 심하게 떨어진다. 피해망상도 잘 동반되는데 이때 식구들에게조차 “내 식사에 탈날 음식을 넣었지?”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을 땐 짜증을 많이 내면서 반항, 비행, 성적 저하 등이 우울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밖에도 햇볕 조사량이 적은 겨울철에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 출산 뒤 나타나는 산후 우울증 등도 있다.

## 편견 제거 후 약물치료로 극복해야

우울증을 방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기분이 울적하고 가라앉을 수 있다’는 식의 병에 대한 오해다. 이런 오해로 인해 국내에서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받는 이는 네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하다.

일단 우울증에 빠지면 아무리 주변에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느냐”는 식의 조언을 해도 이미 문제가 생긴 뇌에서 발생한 비관적·절망적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약물치료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어떤 종류의 우울증인지, 환자 상태는 어떤지 등에 따라 치료가 다르지만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켜 주는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가 가장 널리 쓰인다. 약을 복용하면 2주 뒤부터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해 2~3개월 지나면 정상적인 감정상태로 돌아온다. 단 약복용은 이후에도 의사가 권하는 대로 6개월~1년 이상 해야 한다.

만일 지금 당장 환자가 자살 충동을 느낄 땐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2~3주간 입원해 치료 받는 게 안전하다. 치료 후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는 한 약물은 중단할 수 있다.

## 이럴 땐 우울증을 의심해보자

- ▶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모두 후회, 원망 서운한 생각뿐이다.
- ▶ 쓸데없이 잔걱정이 많아졌다.
- ▶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 ▶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등이 떨어졌다.
- ▶ 몸이 무겁고 처지면서 행동이 둔해졌다.
- ▶ 기분이 울적하다.
- ▶ 모든 일에 남들은 재미있어하는 일조차 나는 재미나 흥미가 없다.
- ▶ 무슨 일을 하건 의욕이나 관심이 없다.
- ▶ 식욕이 떨어졌다.
- ▶ 미래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
- ▶ 잠을 잘 못 잔다.
- ▶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는 등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이상의 증상중 5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 현대인을 사로잡는 퓨전

오윤현 / 시사저널 기자

퓨전(Fusion), 현대인치고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만큼 퓨전은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왜 그럴까? 혹시 퓨전이란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네 일상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마치,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면서 공기의 존재감을 모르듯이…….

이제 퓨전은 현대 사회의 주요한 문화 코드가 되었다. 영향력도 막강하다. 눈만 뜨면 우리는 신문·잡지에서, 거리에서, 텔레비전에서 쉽게 퓨전과 조우한다. 최근에는 아예 퓨전 반도체, 퓨전 마케팅, 퓨전 점술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퓨전이 뭘기에 이처럼 널리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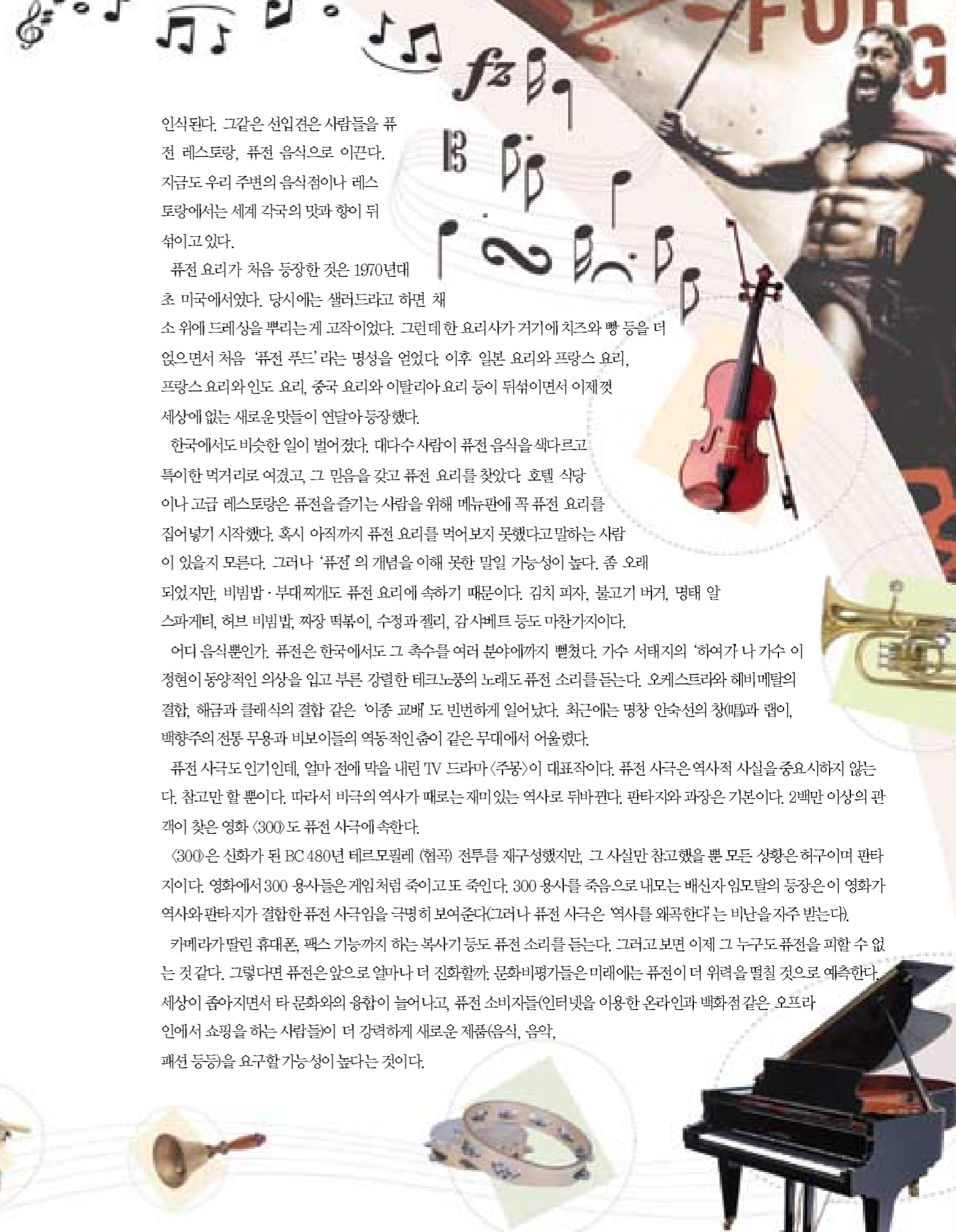
그 '정체'를 파악하려면 어원부터 살펴봐야 한다. Fus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fuse(섞다). 이 말이 영어화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퓨전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예술 장르가 자신을 해체하고, 다른 것과 합쳐져 대안을 모색하는 예술의 한 경향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퓨전은 '서로 다른 것이 융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동양과 서양이라는 장소가 만나고,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이 만나 새로운 그 무엇을 창조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출발은 1970년대 초 재즈를 통해서였다. 그전에 미국의 재즈는 전통적인 재즈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순수 재즈에 진력이 난 소수의 아티스트들이 재즈 연주에 신디사이저 같은 전자 악기를 동원하면서 퓨전 재즈를 탄생시켰다. 이후 재즈는 록과 교류하고 결합하면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

재즈뿐만이 아니다. 이후 퓨전은 다른 음악 장르에까지 나타난다. 클래식과 재즈, 팝과 재즈, 클래식과 가요 등이 결합해 전혀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킨 것이다(이같은 음악은 '크로스 음악'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금과 클래식, 가요와 국악, 클래식과 신디사이저(전자발진기를 설치해 온갖 음을 내는 악기)를 결합시킨 음악 등이 잇달아 등장했다. 이후 퓨전은 음식·패션·건축·디자인 분야에까지 번졌고, 1980년대 들어서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왜 퓨전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일까. 문화비평가들은 감각적이며 순간적이며 변화무쌍한 현대인의 욕구에 의해 "퓨전이 탄생했다"라고 말한다.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성과물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공간, 기술, 시간 등을 융합해 창조되는 상품이나 기술은 기본적으로 '새것'이기 때문이다.

퓨전 음식을 보라. 전 세계에 수많은 퓨전 음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새롭고, 보기 좋고, 맛 좋은 음식'으로



인식된다. 그같은 선입견은 사람들을 퓨전 레스토랑, 퓨전 음식으로 이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각국의 맛과 향이 뒤섞이고 있다.

퓨전 요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 미국에서였다. 당시에는 샐러드라고 하면 채소 위에 드레싱을 뿌리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한 요리사가 거기에 치즈와 빵 등을 더 없으면서 처음 '퓨전 푸드'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후 일본 요리와 프랑스 요리, 프랑스 요리와 인도 요리, 중국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 등이 뒤섞이면서 이제껏 세상에 없는 새로운 맛들이 연달아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대다수 사람이 퓨전 음식을 색다르고 특이한 먹거리로 여겼고, 그 믿음을 갖고 퓨전 요리를 찾았다. 호텔 식당이나 고급 레스토랑은 퓨전을 즐기는 사람을 위해 메뉴판에 꼭 퓨전 요리를 집어넣기 시작했다. 혹시 아직까지 퓨전 요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퓨전'의 개념을 이해 못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좀 오래 되었지만, 비빔밥·부대찌개도 퓨전 요리에 속하기 때문이다. 김치 피자, 불고기 버거, 명태 알스파게티, 허브 비빔밥, 짜장 떡볶이, 수정과 젤리, 감사베트 등도 마찬가지이다.

어디 음식뿐만이. 퓨전은 한국에서도 그 축수를 여러 분야에까지 뻗었다. 가수 서태지의 '하여가 나가수'이 정현이 동양적인 의상을 입고 부른 강렬한 테크노풍의 노래도 퓨전 소리를 듣는다. 오케스트라와 헤비메탈의 결합, 해금과 클래식의 결합 같은 '이종 교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근에는 명창 인숙선의 창(唱)과 랩이, 백항주의 전통 무용과 비보이들의 역동적인 춤이 같은 무대에서 어울렸다.

퓨전 사극도 인기인데, 얼마 전에 막을 내린 TV 드라마 <주몽>이 대표적이다. 퓨전 사극은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참고만 할 뿐이다. 따라서 비극의 역사가 때로는 재미있는 역사로 뒤바뀐다. 판타지와 과장은 기본이다. 2백만 이상의 관객이 찾은 영화 <300>도 퓨전 사극에 속한다.

<300>은 신화가 된 BC 480년 테르모필레(협곡) 전투를 재구성했지만, 그 사실만 참고했을 뿐 모든 상황은 허구이며 판타지이다. 영화에서 300 용사들은 게임처럼 죽이고 또 죽인다. 300 용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배신자 임모탈의 등장은 이 영화가 역사와 판타지가 결합한 퓨전 사극임을 극명히 보여준다(그러나 퓨전 사극은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카메라가 딸린 휴대폰, 팩스 기능까지 하는 복사기 등도 퓨전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누구도 퓨전을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퓨전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까. 문화비평가들은 미래에는 퓨전이 더 위력을 떨칠 것으로 예측한다. 세상이 좁아지면서 타 문화와의 융합이 늘어나고, 퓨전 소비자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과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새로운 제품(음식, 음악, 패션 등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공사 기술제한형으로 대폭 수정**

정부공사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기술제한형 입찰방식이 도입되고 오는 2009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와 턴키, 대안입찰제도의 개선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발전소 인허가권 지자체 이양 검토**

발전소, 송변전설비 등 전원시설 개발시 벌어지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전력 인력 양성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은 4월 13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이원길 한전사장 등 신임 전력공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연내 전원개발 갈등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사후총당금 기금화 추진**

원전사후처리총당금 가운데 원자로의 해체와 폐로를 제외한 비용을 기금화해 전담기관이 관리, 운영토록 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산업자원부 및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빠르게 하반기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CO<sub>2</sub>배출 안하는 석탄화전 공동 개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5개국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sub>2</sub>)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형 석탄 화력발전소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월 22일 보도했다. 이들 5개국은 연내에 기술 개발 협력에 관한 공동 문서에 서명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바, 러시아와 합작 원전 설비**

**공장 세운다**

요미우리신문은 4월 10일 도시바가 러시아의 독점 국영기업인 '아톰프로' 과 공동으로 발전기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러시아 현지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4월 10일 보도했다. 아톰프로는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 등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업을 통합하는 국영기업으로 올해 안에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소양강댐 심층수 냉방용 활용 추진**

강원도 춘천시는 4월 23일 소양강댐에 연평균 4~6도를 유지하는 3억~4억t 규모의 냉수대 가운데 연간 2800만t 정도의 찬물을 건물 냉방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개 읍·면지역 6만여 가구에 소양강댐 냉수를 공급하는데 설

비비 600억원과 관로 580km 설치비 2900억원 등 모두 3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에 따른 전기 에너지 절감액은 연간 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 건설펀드 만든다**

올해 최소 1억달러 규모의 해외 건설펀드가 2개 조성돼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의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투자된다. 건설교통부는 4월 3일 산업은행과 연·기금 보험사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해 사모투자펀드(PEF) 방식으로 해외 건설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1억달러 규모로 PEF를 운용한 뒤 공모를 통해 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00마력급 초전도 모터 개발**

국내 연구진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1300마력급 산업용 초전도 고속모터를 개발했다. 권영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팀은 김영춘 두산중공업 박사와 공동으로 1300마력, 3600rpm(분당회전수)급의 산업용 고속 초전도 모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초전도 모터는 길이 17m, 무게 2t가량으로 기존 산업용 모터에 비해 크기는 3

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에너지 효율을 2% 이상 높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무연탄과 페플라스틱 이용한 친환경 연료 개발**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무연탄과 분리수거된 과자봉지류, 폐비닐류와 같은 폐플라스틱을 혼합해 성형원료로 만들고 이를 무공해 가연성 가스로 전환시키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4월 17일 발표했다. 또한 2009년까지 10톤급 설비 개발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위성' 3호 국내 기술로 만든다**

오는 2010년 발사되는 '과학기술위성 3호'가 국내 연구기관의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다. 과학기술부는 4월 25일 "과학기술위성 3호의 위성본체, 우주핵심기반기술, 주·부 탑재체 개발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위성본체 개발기관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센터가, 주탑재체인 '다목적 적외선 영상 시스템'은 한국천문연구원, 부탑재체인 '소형 영상 분광기'는 공주대·천문연구원, 각각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전복대·항공대·군산대·계명대·기초연·기계연·표

준연 등 총 7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동·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구 온도 상승때 어떤 변화 오나**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지구 환경은 가공할 충격을 받아 한발씩 지옥으로 다가서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4월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한다면 금세기 말까지 평균 6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의 단계별 영향 예상도를 분석, 보도했다. 예상도를 보면 온난화에 따라 영구 동토층 파괴-수증기량 증축-기후변화에 따른 수십억 이재민 발생-사막화 등의 단계를 거쳐 지구상 생물의 95%가 멸종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우주는 '시공간', 아인슈타인이 옳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04년 스탠퍼드 대학교 미 항공우주국(NASA)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발사한 무인 위성 '중력탐사B(Gravity Probe B)'가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4월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력탐사B'가 검증할 2가

지 일반 상대성이론 가운데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휨 시공간(geodetic)'은 1%의 정밀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목재연료 신 에너지공급원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실용화 가능성과 경제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연료를 생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목재펠릿연료란 목재를 파쇄한 뒤 압축해 펠릿 형태로 성형한 것으로 단위 체적당 발열량이 높고, 형태와 크기가 일정해 정량공급이 가능케 돼 산업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심해 망간단괴 채굴 시스템 개발**

해양연구원과 지질연구원은 4월 25일 경남 거제도 고현항 앞바다에서 자체 개발한 '양광시스템'을 이용해 해저 30m에서 망간단괴를 캐내는 실험을 한다고 밝혔다. 양광시스템은 바다 밑에 있는 망간단괴를 잘게 부순 뒤 특수 제작된 관과 펌프 등을 이용해 물 위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다. 해양부는 이 시스템을 보완해 태평양에 있는 해저 5000m 광구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 서클 동정

### 본사 탁구회 과기부총리배 단체전 1부 준우승



본사 탁구회는 제40회 과학의 날과 대덕 R&D특구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월 21일 대전시 대덕스포츠편에서 열린 2007 과학기술부총리배 종합체육대회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1부 준우승 및 개인전 1,2부 공동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 대회는 2004년부터 매년 과기부, KINS, 한수원(주), 전력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에서 참가하여 축구, 탁구, 테니스 등의 실력을 겨루는데 탁구는 실력등급에 따라 개인전은 1부, 2부, 3부, 4부로, 단체전은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본사 탁구회는 2005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및 개인전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체육활동을 통한 회사이미지 제고와 교류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 본사 테니스회 춘계 테니스대회 개최

본사 테니스회는 지난 4월 14일 수지 21세기 테니스코트에서 춘계 테니스대



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전날까지도 번덕스러운 봄 날씨 때문에 대회 개최가 불투명하였는데 대회 날만큼은 화창한 날씨로 돌아와 주어서 참가자 모두가 따뜻한 봄날을 즐기며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대회 결과 금조는 김기혁 이상록 조, 이승중 신태명(퇴사직원) 조, 전진호 서한명 조가, 은조는 김용백 양경석 조, 김남곤 권영학 조, 임승필 윤원숙(직원 가족) 조가 각각 1,2,3위를 차지하였다. 테니스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 테니스대회를 임직원 및 한기 가족을 대상으로 치르고 있으며 테니스 경기를 통하여 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이번 대회에도 퇴사직원 및 가족분들이 참가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신입회원 인사소개 시간도 가졌다.

### 본사 축구단 SEASON OPEN 행사 개최

본사 축구단은 지난 4월 5일 명지대학교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2007년 축구단 정기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SEASON OPEN 행사를 개최하였다. 야간경기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회원외 FC KOPEC(풋살동호회), 31기 신입사원들, 축



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먼저 제1경기로 축구단과 FC KOPEC의 팽팽한 접전이 있었고, 이어 개최식과 공로상 포상 후에 축구단과 31기 신입사원들의 친선경기가 있었다. 특히나 이 경기는 31기 신입사원들의 패기 있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서 KOPEC의 밝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다. 현재 본사 축구단 정기모임인 KOPEC-리그는 매주 목요일 일과 후 수지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 중이며, 축구를 사랑하는 신입회원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 본사 조우회 시조회 개최



본사 조우회는 지난 4월 7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노곡지에서 시조회를 개최하였다. 이른 봄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회원 17명이 참석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리사무소 앞쪽의 좌대와 수초대가 잘 분포된 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낚시를 드리웠다. 낚시를 마친 후 계획한 결과, 플랜트사업관리실 구승림 차장이 30.2cm의 붕어를 잡아서 우승을 차지하였고 2mm 차이로 사업관리처 최철승 차장이 2등, 47.7cm의 잉어를 잡은 홍순원 차장이 행운상을 받았다. 노곡지는 관리형 낚시터로 밤에는 손이 아프도록 많이 잡을 수 있을 뿐더러 관리사무소장의 털털한 모습과 들에서 막 뜯어 버무려 만든 생채, 냉이된장국이 독특한 곳이다. 겨울을 갖 벗어난 첫 낚시대회는 봄을 기다리는 끈들의 설렘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정을 느끼고 또다시 큰고기를 낚는 꿈을 꾸게 하였다. 일에 지치고 시간에 쫓기는 이들이 낚시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사 산우회, 울릉도 성인봉 등반



본사 산우회에서는 회원 및 가족을 포함하여 105명이 지난 4월 26일에서

29일까지 울릉도·독도 관광을 포함한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성인봉 등반여행을 다녀왔다. 26일 저녁 11시에 총 3대의 버스로 나누어 본사를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에 묵호항에 도착하였으며, 새벽 4시 30분에 묵호에서 울릉도로 출발하는 한겨레호를 타고 울릉도로 입도하였다. 입도 후 아침식사를 마친 후 여러대의 승합차로 나누어 육로관광을 하였으며, 최종 나리분지에서 하차하여 본격적인 성인봉 등반을 시작하였다. 산행코스는 나리분지에서 시작하여 신령수, 성인봉, 팔각정을 거쳐, 도동항으로 하산하였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유람선을 이용한 섬일주 해상관광 후 오후에 씨플라워호를 타고 독도로 향하였다. 날씨가 쾌청하여 모두들 독도 입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파도가 심하여 접안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도는 하지 못하고 대신 독도를 천천히 한바퀴 돌면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유람선으로 인해 뱃멀미가 좀 있었으나 독도에 발 한번 디딜 수 있는 영광을 맛보려 그 힘든 뱃길을 달려갔음에도 입도를 할 수 없어 무척 아쉬웠지만, 그래도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29일 일요일에는 아침 식사 후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가졌으며, 11시에 울릉도를

출발하는 배편을 이용하여 묵호에 도착, 미리 기다리고 있던 버스를 이용하여 귀경하였다. 5월 산행은 넷째주에 실시되며 전북 남원에 위치한 바래봉 등반이 예정되어 있다.

### 본사 마라톤회 분당마라톤대회 참가



본사 마라톤회는 지난 4월 15일 분당 중앙공원을 출발, 탄천변을 달리는 분당마라톤대회 하프코스과 5km 코스에 회원 20명이 참가하였다. 이날은 최적의 날씨에 벚꽃이 만발한 탄천의 봄을 보면서 자연과 호흡하는 대회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매년 비슷한 시기의 전 기사랑마라톤대회가 이 대회와 겹쳐 전 기사랑마라톤대회를 포기한 것이 다소 아쉬웠지만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맘껏 즐기는 좋은 기회였다.

## 인사 동정

### 차장책임급

장한영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김창규, 맹정환 · 토목기술처  
진화승 · 사업관리기술처

김종형 · 전기기술처  
박수익 · 건축기술처

### 과장(책임급)

김웅수 · 원자로계통처

### 대리(선임급)

심은섭 · 기계기술처

## 사우에 경사

### 결혼

▶ 원자로계통처 김민석

: 3월 31일 관악웨딩문화원



▶ 계측제어기술처 김두호

: 3월 31일 공군회관

▶ 전기기술처 최진영

: 4월 7일 청담웨딩프라자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김홍철 처장 장남

: 4월 14일 명성교회

### 부음

▶ 정보화추진처 안재순 부장 모친

: 4월 1일 일원동 삼성의료원

▶ 토목기술처 정명화 과장 모친

: 4월 2일 왕십리 한양대병원

▶ 기계기술처 고한중 차장 부친

: 4월 3일 부천 가톨릭대학 성기병원

▶ 원자로계통처 최석남 차장 모친

: 4월 5일 대전성모병원

▶ 원자력사업단 박상욱 차장 부친

: 4월 6일 서울아산병원

▶ 원자로계통처 이재현 차장 부친

: 4월 9일 영천중앙병원

▶ 건축기술처 임봉희 차장 장인

: 4월 15일 경주 동국대병원

▶ 배관기술처 이태식 부장 부친

: 4월 16일 안암동 고대병원

▶ 건축기술처 조철영 차장 장인

: 4월 17일 익산시 팔봉장례식장

▶ 배관기술처 남기현 차장 장인

: 4월 21일 부산전문장례식장

▶ 원자로안전처 박숙자 대리 부친

: 4월 21일 흥성의료원

## 참사랑봉사단

### 기획관리본부 농촌결연마을 의료 및

### 이발봉사 실시

직할 및 기획관리본부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4월 11일 본사 협력병원인 광동한방병원 소속 의사 3명, 구내이발소 이발사 1명과 농촌결연마을(가평군 묵안리)을 방문하여 의료 및 이발봉사 활동을 하였다. 평소 애가동이 불편하여 진료 받기

힘들었던 노인분 22명을 문진하고 침술 처방하였으며, 아울러 교통편이 불편하여 이발을 미루었던 노인분 20명의 머리를 깎아드렸다. 봉사단은 하반기에 한번 더 마을을 방문하여 의료 및 이발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원자력사업단 무법정사 등 다녀와



원자력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본사와 현장에서 일제히 봉사활동에 나섰다. 3월 27일에는 울진현장이 영신모자원을, 28일에는 월성현장이 대자원을, 고리현장이 백양원을, 29일에는 본사에서 무법정사, 애늬의 집, 한울공동체 등 3개시설을, 영광현장이 해뜨는집을 찾아가 청소, 빨래, 건물내부 청소 등 주변환경 정리, 영유아 붐뮈이 야외 놀이기구, 장애인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 및 어울리는 한마당 시간을 가졌다.

### 플랜트사업단 연꽃마을 방문

플랜트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3월 27일 결연기관인 연꽃마을 용인노인요양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실

내외 청소, 전기시설 점검 등 다양한 노력봉사 활동을 펼치며 보람 찬 하루를 보냈다. 이밖에도 플랜트사업단 참사랑봉사단은 또 다른 결연단체인 충무용사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봉사단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성심원 방문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4월 20일 성심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회사를 출발할 때부터 오던 빗줄기는 성심원에 도착할 무렵 제법 굵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누가 먼저라고 하기도 전에 모두들 노란색 우비를 입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복면꽃이 떨어진 정원을 청소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였다. 빗줄기 속에서 노란 우비를 걸쳐 입은 봉사단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빗방울만 큼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밝은 모습으로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였다. 하루의 일들을 끝내고 돌아서 나오는 하늘 아래에는 요란한 천둥 번개가 울려 퍼지고 봉사단원들 가슴아래에는 사랑과 감사라는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하루였다.

## 동우회 동정

### 제17년차 정기총회 개최

동우회는 지난 3월 30일 대치동 소재 중국식당 '중원'에서 제17년차 정기총회를 회원 다수가 참석하여 개최하였

다. 이응만 상근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6년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처분(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견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한 뒤 임원선임의견을 상정하여 회장에 장기옥, 부회장에 서상원, 감사관, 이정희, 송대용을 선임하였다. 한편 총회에 앞서 (주)코센 김관수 사장과 (주)코센 이평석 대표이사에게 자랑스러운 동우인상을, 천광순 IPEC대표에게 감사패를 시상하였다.

### 전기실업 주주총회 개최

동우회가 설립운영하는 (주)전기실업은 지난 3월 20일 강남구 소재 일식당 '요코하마'에서 제12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에는 제12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견, 제1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승인의견, 2007년도

임원보수한도액 승인의견을 심의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한 후, 이사 및 감사선임의견을 상정하여 대표이사에 최봉기, 이사에 홍남표, 안시영, 감사에 김경동을 선임하였다. 이어 정관중 일부변경(안)을 상정하여 사명을 주식회사 한기서비스로 변경키로 의결하였다.

### 결혼

▶ 조규상 장녀

: 3월 24일 명성교회

### 부음

▶ 이복재 장인

: 3월 27일 전주 고려병원

### 취임

▶ 정광호

: 삼육대학교 문화예술대학장

▶ 이내형

: (주)화인텍센추리 전무

## Movie



### 못 말리는 결혼

김성욱 감독, 김수미 · 임채무 주연

전통 계승을 몸소 실천하는 풍수지리가 지만(임채무)의 외동딸 은호(유진)와 강남 큰손 말년 김수미의 외아들 기백(하석진)이 어느날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묘하게 얽혀 연인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문제는 달라도 너무 다른 양쪽 집안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두 사람은 지만과 말년의 친분 유도를 위해 몇 번의 자리를 마련해보지만, 기름과 물 같은 그들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격해지고, 얽힌 데 얽친 격으로 말년이 소유한 땅을 둘러싼 또 다른 악연이 모습을 드러내며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는다. 기백과 은호의 온갖 노력에 맞선 지만과 말년은 오히려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만남을 가지

며 상상할 수 없는 방해공작에 들어가고 거기에 은호의 삼촌 지루(윤다훈)와 지만의 누나 예숙(안연홍)까지 가세해 사태는 점점 꼬여만 가는데... 서로 다른 두 집안의 자녀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에피소드가 유쾌하다

틀린 그림 찾기



두개의 그림중에서 다른 부분 7군데를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보내 주세요.

구성 : 권기수

편집자에게

'엘빙 KOPEC - 말의 태도를 정하는 단어와 말투'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말하는 태도와 말투, 단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되도록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정현주 / 원자력사업관리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관한 화보기사가 좋았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었습니다. 손민재 / 건축기술처

4월호 당첨자 및 정답



- 임광일 / 원자력기술처 차장
- 이은주 / 사업관리기술처
- 이에실 / 건설사업관리실
- 김현주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독자에게

사보「KOPEC FAMILY」는 KOPEC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보에 대한 의견이나 신고 싶은 원고가 있거나 새로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Portal mail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Webadm@kopec.co.kr, 이원주 leew.j@kopec.co.kr 031-289-3194, 한수정 flonei@kopec.co.kr 031-289-3023)또는 독자엽서를 통해 보내주시시오, 퀴즈 한마당에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엽서는 매월 말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부르면

사랑이너희를 손짓하거든 그를따라라 비록그길이어렵고 험할지라도  
 사랑의날개가 너희를 품거든 그에게자신을 온통 내맡기라  
 비록그날개 깃속에 숨은 칼이너희에게상처를 줄지라도  
 그리고사랑이 너희에게 말할땐 그를 믿으라, 비록  
 북풍이저 틀을패허로 만들듯사랑의 목소리가너희의 꿈을 흩트려 놓을지라도  
 왜냐하면사랑은 너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지만, 또 너희를 십자가에 못박기도 하나까. 사랑은 너희를 성숙시키지만, 또너희를 꺾어버린다.  
 사랑은너희의 꼭대기에 올라가 햇볕에 하늘거리는그연한가지를 어루만져 주지만, 또한너희의 뿌리로 내려가 땅에 얽히지 못하도록 흔들어댄다.

- 칼린지브란 <예언자>

사랑때문에 모든것을망쳐 버렸다고, 그놈의사랑때문에 내가 '이모양이꼴'이라고 투덜거린 적이 있으신지? 사랑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을 원망한 적이 있는지?  
 빛과 그림자처럼 사랑도 때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좌절이 된다. 왜라고 묻는다. 그래도 왜 우리는 사랑을 하고자 하고, 하는가? 칼린지브란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노래한다. 그런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따라야 하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우리가 마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큰생명의 마음의 한부분이 된다고, 사랑은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사랑은비라는 게 없고, 다만 사랑 자체를 채울 뿐이라고 이 현자는 우리에게 말한다.  
 봄에 꽃이 피면 우리는 그 이유를 본다. 꽃은 저도 피어나는데 주저하지 않고, 봄은 가겠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온다. 피고지면서, 가고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원재훈 / 시인

